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제333호【루계 제24381호】주체102(2013)년 11월 29일 (금요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20일부터 22일까지의 기간에 중국, 라오스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 환구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보도망, 동북망과 라오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전국위원회 결성식이 22일 단마르크의 쾌뻰하븐에서 진행되였다.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들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되였다.

전국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결성식이 23일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 새로 건설하고있는 김정일군사연구원을 돌아보신 소식을 올렸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인 보도망, 동북망과 라오스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인민군 제2차 보위일군대회가 진행된 소식,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의 인터네트홈페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김정일동지회고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김정일동지회고 전국위원회 결성식이 22일 단마르크의 쾌뻰하븐에서 진행되였다.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들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전국위원회 공동위원장들로 단마르크의 공산당 지도부성원 헨닝 야콥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위원장 안데르스 크리스텐센이 선출되였다.

전국위원회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2돐에 즈음하여 그이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위대한 김정일동지회고 말레이시아위원회 결성식이 23일 말레이시아 돔보 엔터프라이즈회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 장정면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말레이시아 돔보 엔터프라이즈회사 사장 청칭치와 성원들, 각계 인사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청칭치가 선출되였다.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서거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류의 가장 큰 손실로 된다. 그이의 서거 2돐을 맞으며 회고위원회를 조직하는것은 진보적인민들의 응당한 도리이며 본분이다. 만민이 칭송하듯이 김정일각하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향도적력량으로, 공화국을 불패의 사회주의보루로,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인류의 마음의 기둥이시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위원회 결성식이 18일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수카르노교육재단,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에꼬 쑤르요 싼죠요가 선출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발전시키신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인류의 마음의 기둥이시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각하회고위원회 결성식이 18일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에는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수카르노교육재단, 인도네시아조선친선문화교류협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인도네시아선봉자당 중앙지도리사회 총위원장 에꼬 쑤르요 싼죠요가 선출되였다.

그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김정일령도자회고 로므니아전국위원회가 11일 부꾸레슈띠에서 결성되였다.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최고리사회 위원장 바셀레오를레아누가 선출되였다.

회고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정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력사의 땅 판문점에 깃든 백두산위인들의 통일의지

남조선 각계가 높이 칭송

주체85(1996)년 11월 24일 력사의 땅 판문점을 찾으시여 조국통일의 새 국면을 펼쳐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을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은 깊은 추억을 안고 통일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고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하루 24시간동안 초긴장상태에 있는 판문점에까지 김정일장군님께서 나오시였다는 소식을 듣고 과시 백두산 빨찌산의 아들이신 강인담대한 그분이 아니고서야 누가 엄두나 낼수 있는 장거인가고 모두들 경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또 집권당국은 자기들의 목전에까지 장군님께서 나오신데 대해 기절초풍하고 복닥소동을 피웠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판문점에 세워져있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친필비부터 찾으시였다.

친필비에는 주석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각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신 친필이 새겨져있다.

통일애국청년회 회장은 회원들에게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민족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중대사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심장이 고동을 멈추는 시각까지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선물하시려고 심혼을 다 바치신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지를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장군님의 확고한 의지와 단호한 결단의 력사적장거였다.

장군님께서 긴장과 위험속에 있는 판문점에 나오시여 겨레에게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과 락관, 용기를 안겨주시였으니 그분의 애국애족의 일념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다.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주석님의 통일유지를 끝까지 관철하시려는 불변의 신념, 겨레의 념원실현을 필생의 사명으로 여기신 숭고한 뜻이 담긴 애국애족의 행보로 통일조국의 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정봉회회원은 장군님의 판문점시찰은 김일성장군님께서 1937년 6월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를 단행하시여 암흑에 잠겼던 조국땅에 해방의 서광을 비쳐주시였을 때와 같이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서광을 안겨주신 민족사적사변이였다고 격정을 터쳤다.

퇴역장교 김석철은 해마다 11월이 오면 김정일장군님의 판문점시찰로 받아안았던 충격을 되새기게 된다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판문점로대우에까지 나오시였다는 소식에 정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굳센 통일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장군님께서 단행하신 판문점시찰은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에 대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민족사적쾌거였다고 격찬하였다.

경기도 리천에 사는 한 회사원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이남동포들이 얼마나 보고싶으시였으면 일신의 위험도 돌보지 않으시고 판문점에까지 나오셨겠는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선물하시기 위해 한평생 마음쓰시였는데 장군님께서는 그 뜻을 받드시여 통일위업의 진두에서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고 토로하였다.

지식인 전명구는 《판문점에 새기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판문점은 민족의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굳건한 통일의지가 만방에 과시된 곳이라고 강조하였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김정일장군님의 걸음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만드시려는 위대한 걸음이였다, 거룩하신 장군님의 그 모습, 그 자욱은 온 겨레를 통일성전에로 부르는 승리의 상징, 통일조국의 미래를 보는 희망의 상징이였다, 민심은 이미 통일된 래일에 있다고 확신에 넘쳐 피력하였다.

판문점과 더불어 한평생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는 남조선인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한 통일인사는 김정은원수님은 어버이장군님 그대로의 숭고한 통일경륜과 확고한 애국의지, 온 겨레를 한품에 안으시는 광폭의 도량과 자애의 덕망을 지니신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어려있는 판문점을 찾으신 원수님의 거룩한 영상에서 우리 이남민중은 그분의 드림없는 통일의지와 신념을 받아안았다고 격조높이 피력하였다.

《보안법》피해자모임과 통일운동단체들은 《남녘겨레는 백두산장군의 철석같은 통일의지가 온 강토에 빛발쳐가던 력사의 땅 판문점을 잊지 못한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서 민중은 하나된 민족을 보았다.》,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발표 1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서한 《우리의 사회과학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발표 1돐기념 사회과학부문 토론회가 28일에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사회과학, 교육, 혁명사적, 민족유산보호, 출판보도부문, 당일군양성기관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창립 60돐을 맞는 사회과학원의 과학자들과 일군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히신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한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부총장 박사, 부교수 주창일은 《절세위인들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적 업적은 주체적사회과학발전을 굳건히 담보하는 만년재보》라는 제목으로 토론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회과학을 중시하시고 사회과학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우리의 사회과학을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 주체의 사회과학으로 발전시켜오시였습니다.》

토론자는 우리의 사회과학이 수령의 사상과 존함으로 빛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선도해나가는 강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사명을 수행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절세위인들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사상리론적 업적을 력사적재보로, 만년토대로 하고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회과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강화발전되여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재보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근본핵으로 하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기치밑에 우리의 사회과학을 혁명적이며 주체적인 사회과학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시대의 사회과학은 마땅히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에 복무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 철리를 밝히시고 불멸의 사상리론활동으로 인간과 사회력사발전에 대한 과학적인 리해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관건적인 의의를 가지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다음으로 우리의 사회과학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해나갈수 있게 하는 만년토대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사회과학연구에서 주체적방법론을 철저히 구현하며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키고 력사주의원칙을 견지하는것을 사회과학연구의 원칙적요구로 제시하시였다.

또한 조선혁명에 참답게 복무하는 가장 혁명적인 사회과학, 조선민족의 넋과 지향이 맥박치는 우리 식의 사회과학을 건설할수 있는 불멸의 사상리론적 귀감을 보여주시였다.

토론자는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적 업적이야말로 우리의 사회과학이 제일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근본지침이고 리정표이라고 강조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자랑스러운 전통을 끝까지 계승해나가는것은 주체적사회과학발전의 근본원칙이며 총적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사회과학원 부원장 박사, 부교수 지승철은 이렇게 해설하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개척되고 발전하여온 주체의 사회과학이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이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일찌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그를 사상리론적기초로 하는 주체적사회과학의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천재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들을 김일성주의의 초석우에 확고히 올려세우시였다.

혁명적사회과학의 최대의 사명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과학리론적으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수령의 령도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라선 우리 혁명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였다.

하기에 우리의 사회과학은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의 사상과 리론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는 혁명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다고 토론자는 강조하였다.

김형직사범대학 부학장 교수, 박사 김일환은 《주체적방법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며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하고 력사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원칙적요구는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모든 문제를 철저히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고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주체적방법론을 구현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인류사상사의 가장 과학적이며 완성된 혁명사상으로 정립체계화하시고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일관하게 구현하시였다.

원칙적요구는 다음으로 사회과학연구를 혁명실천과 결합시켜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사회과학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키는것이다.

현시기 리론과 혁명실천을 결합시켜나가자면 혁명과 건설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을 현실에 들어가 풀어나가는데 사회과학연구를 집중시켜야 한다.

모든 사회과학자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혁명실천에서 절실하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찾아내여 연구대상으로 삼고 깊이있게 풀어나가며 연구성과를 혁명실천에 제때에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력사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사회과학연구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요구로 된다.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제기된 문제들을 해당 사회현상의 력사적조건과 환경속에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연구에서는 과장되거나 외곡되지 않은 력사적으로 실재한 사실들과 자료들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사회과학정보사업은 사회과학의 지속적이고 효률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는 제목의 론문에서 인민경제대학 부장 박사, 부교수 최철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론증하였다.

근거는 첫째로, 과학지식의 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오늘 사회과학은 그 연구분야가 다양해지고 종래의 분야들도 더 전문적인 분야들로 세분화되여 심화되고있으며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서로 련결된 경계과학들이 새롭게 개척되여 발전하고있다.

방대한 선행연구성과들과 풍부한 현실자료를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지 않는다면 과학적론증이 빈약한 억지주장이나 빈말공부에 매여달리게 되며 현실적가치와 의의가 없는 연구결과를 내놓는데 그치게 된다.

둘째로, 정보기술수단들이 과학연구사업에 널리 리용되고있는 사정과 관련되여있기때문이다.

다른 과학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회과학연구분야에서도 콤퓨터를 비롯한 정보기술수단들을 리용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정보기술수단을 리용한 연구사업은 로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빠른 기간에 높은 성과를 거두게 한다.

사회과학정보사업을 강화하여 정보봉사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여야 그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연구성원들의 정보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줄수 있다.

토론자는 앞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밝혀주신대로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게 정보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정보자료들을 제때에 보장하고 과학연구사업에 적극 활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사회과학원 국장 송국남은 《사회과학인재육성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주체적사회과학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구》라는 제목의 토론에서 인재육성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나라 사회과학발전의 계주봉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의 중대한 력사적전환의 시기 우리의 사회과학이 혁명위업수행과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하는 주체적사회과학으로 끊임없이 발전해나가자면 자기의 계주봉, 명맥이 굳건히 이어져야 한다.

그 직접적담당자가 바로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깊은 전문지식과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한 사회과학인재후비들이다.

사회과학인재후비들의 어깨우에 우리 사회과학을 김일성-김정일주의사회과학으로 변함없이 계승발전시켜나가야 할 임무가 지워져있으며 그들에 의하여 주체적사회과학의 발전과 창창한 미래가 담보되게 된다.

다음으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의 사회과학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숭고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지식경제시대에는 과학기술인재를 떠나서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으며 그에 대한 요구는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재능있는 인재가 없이는 사회과학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실현을 위한 혁명투쟁과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동할수 없다.

오늘 지식경제시대와와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더욱 발전시키자면 사회과학인재육성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사회과학부문의 교육내용과 방법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대학졸업생모두를 전공분야에서 자기 몫을 당당히 할수 있는 실력가형의 인재로, 유능한 재사로 키워내야 한다.

토론자들은 사회과학부문의 교원, 연구사, 강사, 기자, 편집원들과 일군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사상리론적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높은 사회과학연구성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총돌격전에로 부르는 조직정치사업 활발

각 지 당조직들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높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발동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람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며 인민대중이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때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과 탄부들을 올해에 높이 세운 전투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공세식으로, 화선식으로 들이대여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이 창조되게 하고있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혁명적공세의 불바람이 일고있는 분위기에 맞게 신년사과업관철정형을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한건의 미결건도 없이 집행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참모부의 일군들은 탄광별, 갱별, 소대별로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경쟁열의를 북돋아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이에 고무된 제남탄광, 남양탄광을 비롯한 기업소안의 모든 탄광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높은 생산성과로 올해전투를 결속할 의지를 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고있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앞장에는 경공업부문의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도 서있다. 당정책의 운명, 대고조진군의 성패는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9월방직공장, 박천견직공장, 넝변견직공장의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일하고있다.

평안북도당위원회와 평안남도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과 당세포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정신을 철저히 구현하여 대중의 정신력이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총폭발되게 하고있다.

재령군, 은천군, 연안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당조직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과 력량을 총집중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당면한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특히 직외강연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강연선전대활동은 당면한 영농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더 큰 혁신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순천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전력공업부문의 당조직들에서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깊이 심어주고 실천활동에 구현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발현되고있는 애국적소행들을 귀중히 여기고 높이 평가해주며 애국의 열풍을 일으켜 너도나도 애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당위원회를 비롯한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후방사업은 사회주의수호전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 단위의 후방사업을 본때있게 진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올해전투결속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의 열의를 고조시키고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 벌려나가고있는 당조직정치사업은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로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해 산악같이 일떠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손영희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할 일념으로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여

뜻깊은 항공절을 맞이한 이 아침 잊지 못할 한편의 노래가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선군시대 인간들의 뜨겁고도 열렬한 애국의 감정을 노래한 시대의 명곡 《내 나라의 푸른 하늘》!

위대한 당이 안겨준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잡고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나가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도, 선군으로 지켜지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아래 행복의 날과 달들을 아름답게 꽃피워가고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심장속에도 명곡의 구절구절은 뜨겁게 울린다.

…

이 세상 그 어디나 하늘은 있어도
너보다 푸른 하늘 어디 가 찾으랴
아 은혜론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내 나라의 정든 하늘 안고 살리라

일제에게 나라를 통채로 빼앗겼던 수난의 그 나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새겨졌던 조국의 하늘은 찬란한 태양의 빛발이 아니라 한점의 별빛도 찾아볼수 없는 캄캄한 밤하늘이였다.

설음과 울분으로 가득찬 조선의 밤하늘, 그 하늘이 오늘과 같이 세상에서 가장 맑고 푸른 하늘로 조국의 대지우에 가없이 펼쳐질수 있게 된것은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찾아주시고 이 땅에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하기에 항공절의 이 아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시대의 명곡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뜨거운 심장으로 부르고 또 부르며 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의 항공 및 반항공군의 영광넘친 항로를 긍지높이 추억하고있다.

지난해 5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새 조선의 항공대를 창설해주심으로 하여 조선인민군 항공무력의 자랑찬 오늘이 있다고 하시면서 항공대가 창설된 날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11월 29일을 항공절로 정해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항공절을 제정하여주신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그이의 철의 의지의 뚜렷한 과시이다.

선군령장의 그 숭고한 뜻에 떠받들리여 오늘 우리의 항공 및 반항공무력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는 무적의 전투대오로 더욱 강화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조선의 100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인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존함과 불멸의 혁명업적으로 빛나는 가장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력사이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주체적인 항공 및 반항공무력은 위대한 선군령장들의 품속에서 태여나 백전백승의 한길만을 억세게 걸어왔다.

일찌기 항일전의 그 나날 주체적인 공군무력건설의 웅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지체없이 새 조선의 공군무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새 조국건설에 필요한 군사간부들을 키워내는 평양학원(당시)에 항공과를 내오도록 하시고 항공협회 성원들과 로동자, 농민출신의 끌끌한 청년들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그처럼 짧은 기간에 우수한 비행사, 기술근무원들이 태여날수 있었고 조국청사에는 주체적공군무력 건설이라는 력사의 새 장이 펼쳐질수 있게 되였다.

우리의 항공 및 반항공군발전사에는 어버이수령님의 건군위업을 높이 받드시고 공군무력창설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도 뜨겁게 깃들어있다.

백두산위인들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마침내 주체36(1947)년 8월 20일 처음으로 정규비행대가 창설되였다.

정녕 그것은 우리의 공군무력이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갓 창건된 공군무력의 강화발전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또 얼마나 크나큰 로고를 기울이시였던가.

새로 꾸려진 비행부대에 찾아오시여 우리의 젊은 매들이 얼마 안되는 기간에 새로운 비행기를 혼자서 자유롭게 탈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며 지난날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사람은 무식하기때문에 비행기를 탈수 없다고 하면서 항공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그러나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비행기술을 특수화하는 놈들의 《리론》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고 그토록 만족해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주체조선의 항공 및 반항공군발전의 찬란한 래일을 확신하며 환히 웃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해빛같은 그날의 미소를 세월이 흐른들 어찌 잊을수 있겠는가.

비행사들은 우리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하시며 비행사들에게 공급할 식료품으로부터 군복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보살펴주시였으며 새 조선의 비행사들과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비행장의 활주로를 걸으시면서 비행사들에게 좋은 비행장을 마련해줄수만 있다면 이런 길을 얼마든지 걷겠다고 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비행사들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하늘의 결사대로서의 자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적들이 《공중요새》라고 떠벌이던 《B-29》와 맞서 단번에 격추시킨 공화국영웅 리문순, 인천앞바다에 기여든 적함선에 기체돌입하여 그것을 단호히 수장해버린 공화국영웅 한계만, 김정흘, 생명의 마지막순간에도 당과 수령의 전사로서의 혁명적지조를 지켜 달려드는 원쑤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우창화를 비롯한 하늘의 결사대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용감히 싸운 이런 영웅비행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좋게 꺾어놓고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사수할수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의 로고가 뜨겁게 어려있는 우리의 항공무력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어느날 공군사령부(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공군사령부는 적들의 공중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키며 싸움이 시작되면 지체없이 적들을 쳐부실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성스러운 임무를 다하자면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격동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는 일군들을 미더운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행사들을 비롯한 모든 공군장병들을 길영조형의 육탄영웅으로 키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서와 공군장병들을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후방공급사업을 개선할 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공군에 대한 당의 기대는 매우 크다고, 나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공군장병들에게 맡긴다고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비행사들은 이렇듯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에게 최상최대의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당의 주체적인 공군전법을 능란하게 활용할수 있는 하늘의 강자들로 준비할수 있도록 걸음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언제인가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몸소 보아주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비행사들은 출격명령이 내리기 바쁘게 억센 나래를 펼치고 쏜살같이 하늘높이 날아올라 평시의 훈련을 통하여 다져온 자기들의 높은 전투력과 비행기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무적필승의 용맹이 나래치는 훈련을 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부대일군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비행사들은 모두가 조국수호의 길에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칠 불타는 조국애로 충만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충정의 대오가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기에 우리 나라는 금성철벽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영웅이 되는것은 자주적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값있고 보람찬 삶으로, 가장 높은 영예로 된다고 하시면서 모두가 조국보위성전에서 영웅이 되여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기대, 뜨거운 고무를 거듭 안겨주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령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우리의 항공무력은 수령결사옹위의 강군,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다.

우리 비행사들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용감한 매들로 억세게 키우시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겠는가.

몸소 비행지휘탑에 오르시여 비행사들이 주체의 공군전법을 능란하게 활용하는 하늘의 용사들로 자라나도록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비행사들과 함께 비행기에도 오르시여 그들이 어떤 정황속에서도 막힘없는 높은 비행술을 소유하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신분, 길영조영웅을 배출한 비행부대를 찾으시여서는 영웅이 사용하던 학습장들을 보시며 조국의 하늘에 위훈의 별을 새기고 떠나간 영웅전사를 뜨겁게 추억해주시고 그를 영광의 최절정에 내세워주시였으며 그가 쓴 시로 노래를 만들어 전군, 전민이 부르도록 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였다.

우리 나라의 항공 및 반항공군건설에 쌓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은 오늘 또 한분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언제나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의 용감한 비행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그들을 찾으시여 무비의 용감성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지난해에만도 여러차례에 걸쳐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들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현명한 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영웅적조선인민군 항공무력이 태여나고 필승불패의 무적의 대오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항공 및 반항공무력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때로는 바람부는 훈련장에 서시여 비행사들의 용맹스러운 훈련모습을 오래도록 보아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날에는 훈련장을 몸소 걸으시면서 비행사들이 자나깨나 마음을 하늘에 얹고 비행훈련을 생활화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비행사들이 리용하는 식당에 들리실때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어주시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안겨주시여 비행사들의 가슴을 후덥게 해주시였고 한 영웅비행사의 가정을 찾으시여 온 나라 비행사들과 안해들을 따뜻이 고무격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은 그대로 우리 비행사들이 영원히 김정은결사옹위의 성스러운 항로를 따라 충정과 위훈의 자욱을 수놓아갈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으로 되고있다.

수령결사옹위의 항로에 삶의 좌표를 정하고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래 평양이 있다는 신념의 노래 높이 부르며 조국의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는 충정의 대오,

침략자들이 감히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0.001㎜라도 침범한다면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여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멸적의 의지가 우리의 용감한 비행사들의 심장마다에 차넘치고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자라난 이런 무적필승의 강군이 내 조국의 하늘을 굳건히 지키고있기에 우리 공화국의 하늘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맑고 푸른 하늘로 자랑떨칠것이다.

본사기자 정 순 학

몸소 찾아주신 해결방도

하나의 공장, 하나의 제품을 보시여도 언제나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천만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들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나의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천강기슭에 자리잡고있는 어느 한 공장을 찾아주시였을 때였다.

이 공장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자강도를 비단도, 잠업도로 전변시키기 위하여 오래전에 벌써 자강도에서 뽕나무밭을 조성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앞으로 누에고치를 가지고 실을 뽑는 제사공장도 잘 건설하여 자강도를 비단고장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휘황한 전망에 떠받들려 일떠선 공장이였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강도인민들이 잘살기 위하여서는 뽕나무를 많이 심고 제사공장을 건설하여 비단실을 뽑아 인민생활에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주체76(1987)년 8월 희천시에 명주실을 생산하는 공장을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몸소 터전도 잡아주시며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오시였다.

자강도인민들의 생활을 위하여 늘 마음쓰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은정을 가슴깊이 더듬으시며 생산현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비단실생산실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였다.

당시 공장에서는 누에고치 부족으로 생산을 활성화하지 못하고있었으며 공장의 일군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타깝게 뛰여다녔다.

그러나 좀처럼 해결방도가 서지 않았다.

공장의 이러한 실태에 대하여 말씀올리는 공장일군의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공장에서 농촌에 필요한 여러가지 물자를 가져다놓고 누에고치와 바꾸어주면 공장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지 않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이 협동농장들과 직접 거래하는 방법을 이 공장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아야 하겠다고, 생산이 활성화되여 자강도인민들의 생활만 높아진다면 법도 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가슴은 뭉클해졌다.

공장을 하나 건설해도, 생산을 밀고나가도 그 규모나 생산성과에 앞서 그것이 인민생활에 얼마나 이바지할수 있는가 하는것부터 따져보시며 모든 사업을 구상하시고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가 이 세상 그 어디에 또 있으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일군들에게 공장을 만부하로 돌리자면 실지 누에고치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협동농장들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누에고치를 생산보장할수 있는 협동농장들과 계약을 맺고 비료, 박막, 농약, 작업복을 비롯하여 농장들에서 요구하는 물자를 미리 알아가지고 제때에 가져다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 해결방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최대의 중대사로, 최고의 투쟁목표로 틀어쥐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걸으신 위대한 장군님,

정녕 인민을 위해 마음쓰시는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찾아주실수 있는 방도였다.

이윽고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공장에서 만든 제품들을 희천시 인민들의 생활에 쓰도록 하여야 하겠다고 거듭 강조하시였다.

뜻깊은 그날 일군들모두는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한량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는 생각으로 가슴 적셨다.

절세위인의 거룩한 령도의 자욱이 새겨진 공장은 그후 위대한 어버이의 인민사랑에 떠받들려 인민생활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자랑많은 공장으로 되였다.

전 광 남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누악쇼뜨

모리따니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모하메드 울드 아브델아지즈각하

나는 모리따니독립 5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경제적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2(2013)년 11월 28일 평 양

라말라흐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마흐무드 아빠스각하

나는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팔레스티나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우리 인민은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고 동부꾸드스를 수도로 하는 독립국가창건을 비롯한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들을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련대성을 보내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강점된 팔레스티나령토에서의 이스라엘의 비법적인 정착촌확장책동과 인종주의적인 탄압행위들을 종식시키고 중동에서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2(2013)년 11월 28일 평 양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선덕과수농장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어주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해나가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 나간 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였던 열렬한 애국주의를 실감있게 보여주는 위대성자료들을 가지고 해설모임을 진행하면서 우리 인민들을 잘살게 해주시려고 그토록 마음쓰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모두가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농민이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날의 해설모임은 김정일애국주의는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넋이고 숨결이며 부강조국건설의 원동력이라는것을 대중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주었다.

본사기자

전화의 나날 조선청년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새기고있다. —북구당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전 성 남 찍음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시하시며

하나의 사판을 보시면서도

주체73(1984)년 5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책시도시건설계획사판을 보아주시던 때에 있은 일이다.

사판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며 일군들에게 사판에 표시된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좋은 위치에 자리를 정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다층살림집들에 대해서는 창광거리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지방의 특성이 살지 않는다고 일깨워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단층살림집구역이 표시되여있는 곳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시였다.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사판을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단층집은 대담하게 헐어버리고 다층살림집들을 특색있게 지어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커다란 자책감에 얼굴이 붉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인민들에게 단층살림집이라도 많이 지어주는것만도 큰것으로 생각하면서 그에 만족을 느끼고있던 그들이였기때문이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일군들에게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라고 강조하는것도 결국은 모든 일을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는데서 인민들의 리익을 위한데 기본을 두라는것인것만큼 도시를 하나 건설하고 집을 한채 지어도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하고 쓸모있게 짓는데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그러고보면 사판에서 바로잡아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고 하시면서 그 수정방향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가슴은 그이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일군들이 터친 감격

주체64(1975)년 9월 중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단위에서 준비한 생활필수품 견본들을 보아주시다가 텔레비죤받침대가 놓여있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한 일군이 그이께 이 텔레비죤받침대는 모양도 색갈도 보기좋게 만들었기때문에 누구나 욕심을 내는 제품이라고 자랑삼아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득 그에게 의자를 가져오라고 이르시였다.

일군이 가져온 의자를 받으신 그이께서는 텔레비죤받침대에서 몇걸음 떨어진 곳에 그것을 놓으시더니 몸소 거기에 앉으시여 자세를 약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면서 무엇인가 가늠해보시였다.

잠시후 의자를 다시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 받침대에 눈길을 보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텔레비죤수상기의 받침대가 조금 높지 않은가고 물으시였다.

뜻밖의 물으심에 일군들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였다.

그러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의자에 앉아서 보기에도 높은데 온돌방같은데서 그우에 텔레비죤을 놓고보자면 목을 쳐들고 보아야 할것이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의자를 한옆으로 밀어놓으시더니 일군들이 어쩔새도 없이 그 자리에 앉으시였다.

바닥에 앉으시여 받침대를 살펴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온돌방에 앉았을 때 텔레비죤이 수평으로 보이게 해야 하겠는데 확실히 받침대가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말씀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격정으로 끓어번지였다.

이윽고 일군들을 다정히 바라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텔레비죤받침대가 높으면 조선사람들의 가정생활풍습에 맞지 않는다고 다정히 일깨워주시였다.

이날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사소한 문제까지도 관심하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라는 심장의 웨침이 세차게 울려나왔다.

본사기자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풀고 강성국가건설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자면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합니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게 된다. 나라의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도 최신과학기술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더 높이 발휘될수 있다.

과학기술은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이다. 오늘날 과학기술발전수준은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 기본징표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과학기술의 힘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본질에 있어서 과학기술혁명이며 첨단돌파에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이 있다.

우리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우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는 과학기술인재에 의하여 결정되며 과학기술강국은 곧 과학기술인재강국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전략적로선과 정책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전선의 주인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주체조선의 혁명적지식인들이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과 조국앞에 지닌 사명과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김정일애국주의를 높이 발휘하여 자랑찬 과학기술성과로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 세계를 앞서나가려는 자신만만한 배짱과 담력을 안고 피타는 탐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혁신적이고 효과성이 큰 연구성과들을 내놓을 때 우리의 과학기술은 빨리 발전하게 될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것이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관리는 나라의 지적자원을 총동원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며 모든 연구단위들과 전국의 과학기술사업단위들이 새로운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 사업을 창발적으로 원활하게 해나가도록 적극 밀어주고 추동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문별, 연구기관별로 첨단돌파목표와 절박한 경제문제를 풀기 위한 관건적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단계별발전전략과 현행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돌파목표와 계획을 실현하는데 연구력량과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목표를 바로 정하고 주인답게 밀고나가도록 과학기술적지도를 짜고들며 이에 대한 검열과 감독통제사업을 실속있게 하여 모든 과학기술발전과제들이 제때에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과학기술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도록 하는것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현시기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곧 당과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문제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오늘에 와서 과학기술을 홀시하거나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외면하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이 없으며 혁명을 옳바로 해나갈수 없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체계적으로 늘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 기술자들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내세워주며 그들이 높은 긍지감과 열의를 가지고 과학연구사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도록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온 사회에 과학기술학습기풍을 세우며 누구나 다 과학기술을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일군들이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는데서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모든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은 높은 과학기술성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힘있게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리 영 애

세계평화수호와 동방조선의 선군정치

라브렌찌 구르드지예브

나는 지난 시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일관하게 구현하고있는 선군정치가 세계정치사와 평화수호에 거대한 영향을 준데 대하여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나의 심정을 세상에 전하고싶은 충동을 금치 못하군 하였다.

물론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력사가도 아니며 군사가는 더욱 아니다. 로씨야의 평범한 작가의 한사람일뿐이다.

허나 조선의 선군정치가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가져왔을뿐아니라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는 력사적사실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붓을 들게 하였다.

1

력사가들은 인류사를 가리켜 전쟁사라고 평하였다. 그들은 20세기 전반기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철의 폭풍과 불의 파도가 전 지구에 휘몰아쳤다고 주장하고있다. 력사가들은 이러한 견해에 기초하여 20세기 후반기로부터 21세기초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적견지에서 보면 이전시기의 무서운 폭풍과 파도가 잦아들어 평화의 물결이 인 시기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고있다. (물론 력사가들은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이나 발칸반도에서의 전쟁과 같이 지역적인 평화와 안전을 파괴, 유린하는 국부전쟁들이 있었다는것을 부인하지 않고있다.)

그들은 인류력사중 3, 300여년을 잘라봐도 3, 100여년이 전쟁기이고 평화기는 다 합쳐도 겨우 200여년밖에 안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 세계적인 상대적평화기가 인류사상 처음보는 사실이라고까지 서술하고있다. 그들은 인류 반만년사에 1만 4, 500여차의 전쟁이 있었다는 기록에 비추어보면 지난 조선전쟁이후 60여년간에 근 180차의 전쟁이 있었을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이상은 다른 시기보다 세계적으로 평화가 깃든 나날이였다는 주장에 견해들을 합치고 있다.

나는 이 분석에 동감하면서 지난 60여년간의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조선의 승리가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게 된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무엇보다 동서방의 군사전략가들이 그처럼 관심하고 주목하는 조선의 지정학적위치에 대한 서술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

미국도서 《비사 조선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조선은 수세기동안 전략적십자로에 있었다.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조선은 아시아대륙으로부터 일본에 들이댄 권총이였으며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본에 의한 중국침략의 력사적교두보였으며 로씨야인들에게 있어서는 울라지보스또크에 대한 위협이였으며 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의 그 이상의 확장을 봉쇄말살하는 〈봉쇄〉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였다.》

미국이 1만여km나 떨어져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침략과 간섭의 마수를 뻗친것이 조선반도의 이 지정학적위치에 있었다는것은 세계정치가, 군사전략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음은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분석의 키를 돌리려고 한다.

그러면 미제국주의가 조선반도의 지정학적위치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전쟁초기부터 이 전쟁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하고 세계핵전쟁으로 만들려고 하였다는것을 직감할수 있다.

《트루맨 회고록》을 비롯한 미국도서들의 자료에 의하면 1950년 조선전쟁을 개시한 미국대통령 트루맨은 이 전쟁에서 미국전쟁사상 처음으로 《192km의 퇴각》이라는 수치를 당하자 조선전쟁에서 원자탄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핵공갈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을 교두보로 하는 제3차 세계대전을 발발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 준비를 다그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한편 당시 미극동군사령관이였던 맥아더는 조중접경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하며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라고 폭언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인천앞바다에 정박하고있던 미국항공모함에 은밀히 핵무기를 배비하고 핵탄을 적재한 함재기들이 출격명령을 기다리고있었다.

이 자료들은 미국이 조선전쟁시기에 벌써 3차 세계대전을 준비하고있었다는것과 조선전쟁의 시작은 세계핵전쟁의 개시와 같은 의미를 안고있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만약 이 전쟁에서 조선이 승리하지 못하였더라면 사태가 어떻게 번져졌을것인가. 그것은 너무도 명백한것이였다. 1950년대에 벌써 조선반도로부터 핵대전의 파도가 세계적인 범위에로 휩쓸어갔을것이라는것은 예측하기 힘들지 않다.

여기로부터 1950년대 전쟁에서의 조선의 승리는 전인류를 핵참화로부터 구원하고 아시아와 세계평화수호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돌이켜보면 미국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때에도 그리고 20세기 90년대초와 21세기초의 조미대결전때에도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3차 세계대전, 세계열핵전쟁의 불을 지르고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망을 가지고있었으며 이를 위해 항시적으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무력을 집결시키고 제2조선전쟁발발의 기회만을 노리였다. 조선의 평화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었다.

허나 그때마다 조선의 초강경대응전략이 평화를 지켜주었다. 지구상 그 어느 지역에서도 멈출줄 모르던 미제국주의의 핵전쟁마차가 조선의 문턱만은 넘어서지 못하였던것이다.

만약 대양건너의 핵전쟁마차가 조선의 문턱을 넘어서서 불질을 했다면 이 지구상에서는 어떤 비극적사태가 빚어졌을것인가.

인류여 상상해보시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터졌다면 그 불길은 조선반도전체를 핵참화속에 잠기게 한것은 물론 전반적아시아지역을 방사성오염지대로 만들었을것이며 그것이 더욱 크게 번져져 세계의 넓은 지역을 사막화하였을것이라는것을.

핵전문가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3만 6, 000개(1990년대중엽)의 핵무기가 사용되는 경우 그 피해규모는 인류가 전쟁력사상 겪은 모든 피해를 다 합친것보다 더 클것이라고 보았다. 전쟁사가들은 새로운 대전이 일어나 3만 6, 000개의 핵버섯구름이 치솟아오른다면 무려 93억의 희생을 내는것으로 추산하였다. 여기에 100~200년간의 방사성피해를 가산하여야 하며 지금의 핵탄들이 히로시마에 떨군 원자탄보다 수십, 수백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가지고있다는 점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허나 그 거대한 방사성오염지대도 생기지 않았고 넓은 사막화도 그 어떤 희생도 없었다.

이것은 조선의 승리가 가지는 무게가 결코 간단한것이 아니라는것을 절감케 한다.

인류가 살고있는 지구를 없애버리는것과 같은 대재난으로부터 지구와 인류를 구원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한것, 이것이 바로 조선의 백전백승이 가져다준것이라는데 대하여 나는 결코 의심하고싶지 않다.

평화는 건설이고 창조이며 행복이란 말이 있다. 평화적인 환경이 성공적인 건설을 담보한다는것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진리이다.

조선이 승리하지 못하였다면 이 지구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장기간 평화의 하늘밑에서 인류력사의 가장 큰 변혁으로 알려지고있는 최첨단기술, 정신문명, 물질번영을 감히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는가. 없었을것이라고 단언하고싶다.

참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평화와 안전에 중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조선의 승리가 가지는 무게를 음미해볼수록 세계평화수호와 인류발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조선앞에 머리를 숙이게 된다.

세계를 공정한 시각에서 보는 언론들이라면 그 누구든 조선의 승리의 의의를 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반드시 력점을 찍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총소리를 내지 않고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대규모국부전쟁과 3차 세계대전, 세계열핵전쟁을 미리 막고 평화를 수호하였다는것이다.

세계는 지난 60여년간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총포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승리하였다. 총포성없는 승리였다. 세계는 총포성이 울리는 3년간의 전쟁에서 이기고 세계평화를 지킨 조선의 승리에 감탄하였지만 총포성이 울리지 않은 60여년간의 반제반미대결전에서 이기고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한데 대해서도 탄복을 금치 못하고있다.

인류가 경탄하는 리유의 첫번째는 조선이 제국주의자들의 포위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군사적위협과 공갈로써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자 히틀러강도배들이 레닌그라드에 가한것과 같은 봉쇄를 들이대였다. 전쟁사가들은 900일간의 레닌그라드에 대한 봉쇄를 가혹성의 대명사로 서술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봉쇄는 그보다 더 엄혹한것이였다. 그것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봉쇄였고 한두해가 아니라 60여년간, 2만여일간의 봉쇄였으며 현대적무기정도가 아니라 열핵무력의 봉쇄였고 두세방면으로가 아니라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등 사면팔방의 봉쇄였다. 조선은 력사상 가장 가혹한 봉쇄속에서 조국을 지키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는 2010년 6월 조선중앙통신이 5대륙에 날린 다음과 같은 수자를 기억하고있을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렬강의 경제제재봉쇄만으로도 13조 7, 000여억US$의 손실을 보았다. 정녕 천문학적수자이다.

로씨야언론들도 이 수자를 다시 세계에 전하면서 이 수자면 조선이 벌써 열번도 더 경제강국의 대렬에 들어섰을것이라고 덧붙이였다.

조선이 겪은 난관과 시련은 결코 가벼운것이 아니였다.

나는 조선인민이 조국수호와 아시아의 평화, 세계평화수호를 위한 투쟁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겪어왔는지 잘 알고있다. 하지만 나는 조선의 다른 중요한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있다. 적들은 장구한 기간 포위, 봉쇄, 제재의 올가미와 사슬로 조선의 목을 조이면 조선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사회주의를 버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허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평양체류기간 내가 받은 큰 감명의 하나는 조선인민이 지닌 일심단결의 정신, 민족자존의 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 조국의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였다. 력사의 갈피를 헤쳐보아도 오늘의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런 정신을 지닌 인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것이 세계언론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조선은 이 정신력의 총폭발로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제재의 올가미와 사슬을 끊어버리며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조선은 이 강한 정신력으로 사회주의를 지켜왔고 우주에로의 큰걸음을 내짚었으며 강력한 나라로 우뚝 솟아올라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다.

이러한 사실앞에 이 세상 누구인들 놀라지 않겠는가!

인류가 경탄하는 리유의 두번째는 조선이 60여년간의 정전속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한데 있다고 생각한다.

반세기이상의 정전은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를 위한 이 나라의 투쟁에 또 얼마나 준엄한 시련을 가져다주었던가. 한방의 총소리가 순간에 정전을 깨뜨리고 평화를 불길속에 잠기게 할수 있었다. 때문에 군사가들은 정전을 준전시상태라고도 한다. 조선반도에서는 이러한 준전시상태의 두터운 얼음장이 60여년간 녹을줄 몰랐다.

세계전쟁사의 페지들을 번져보아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이행이 수개월 아니면 수년을 넘지 않았다. 1차대전사도 월남전쟁사도 중동전쟁사도 그러한 사실들을 기록하고있다. 허나 조선정전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조선의 평화가 필요치 않았다. 전쟁이 필요하였으며 전쟁은 정전을 필요로 하였다.

그들은 조선정전을 제2조선전쟁발발의 가장 적절한 시공간으로 간주하고 장기간의도적으로 정전을 평화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공정하고도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안들과 제안들, 조치들을 미국에 끊임없이 제기하였으나 그들은 이에 조금도 응하지 않고 오히려 조선으로 하여금 한시도 평화롭게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조선은 60여년간을 긴장된 준전시상태에서 살아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허나 적들의 장기적인 정전계략에 속아넘어갈 조선이 아니였고 평화를 구걸할 조선은 더욱 아니였다.

60여년간 난관과 시련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수호하여온 조선이였다.

이 지구상에 조선처럼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겪은 나라가 없으며 그처럼 큰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며 반세기이상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의 싸움을 벌려 승리한 나라도 없을것이다.

세계여, 60여년간의 봉쇄, 정전속에서 발휘된 조선의 불굴의 정신력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 세계를 위해 바친 그 정신력의 숭고함, 강인함을 다 헤아릴수 없다면 이 나라의 백승과 그로 하여 이룩된 세계평화수호의 참다운 의미를 다 말할수 없으리.

정녕 반세기이상의 봉쇄, 정전속에서의 위대한 승리와 세계평화수호, 이것만으로도 조선은 응당 세계의 경탄을 받아야 한다.

인류사에 보기드문 정치군사적기적을 서술해내려가는 이 로씨야작가의 붓끝도 격정의 눈물에 젖어있음을 숨기고싶지 않다.

많은 사람들, 특히 서방세계에 있어서 이러한 현실은 신비한 수수께끼로 되고있다.

이 행성의 평화와 안전에 거대한 기여를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백전백승이야말로 불굴의 정신력의 승리였고 군사적기적이였다.

지금도 우리 모스크바가수들은 쏘一도전쟁때의 준엄한 시련을 회고하며 로씨야사람들이 군화를 벗지 못한채 지구의 절반을 걸어 베를린까지 갔다고 긍지높이 노래하군 한다. 나는 조선의 가수들이 포성을 울리지 않고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60여년이라는 장구하고도 준엄한 세월을 넘고넘으며 조국을 수호하고 세계평화를 지켜온 자기 인민에 대해 더더욱 소리높이 구가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싶다.

사람들은 가장 값비싼 승리는 피를 흘리지 않고 이룩한 승리라는 명언을 알고있을것이다.

총포성없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강적과 싸워이기고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한 조선의 백전백승이 가지고있는 의미야말로 진정 지구와 같이, 우주와 같이 큰것이라고 선언한다.

세계는 평화로운 푸른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조선에 숭고한 경의를 드려야 하리.

2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한 조선의 승리가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것을 세계는 알아야 한다. 하늘이 준 선물도 아니며 우연히 찾아든 행운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조선에 백승을 가져다주었던가.

서유럽의 한 시인은 하나의 사상으로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채울수 있다고 하였다.

80여년전 조선에서 전세계를 진감시킬 위대한 사상이 탄생하였다. 그 사상을 창시하신 분은 조선민족이 태양으로 받든 김일성동지이시였다. 그분께서는 1930년대 항일대전을 벌리시면서 위대한 선군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의 수천년력사, 수천년의 세계전쟁사, 군력사를 통찰하시고 처음으로 천명하신 이 사상은 세기를 두고 세계정치계, 군사계를 뒤흔들어놓을 중대사상이였다.

이 사상으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신 김일성동지께서는 1950년대의 조선전쟁에서도 이 사상으로 승리하시였다.

그후 60여년간 벌어진 총성없는 반제반미대결전에서의 조선의 승리의 비결을 서술하자면 다음의 사실에 먼저 주목을 돌려야 할것이다.

1990년대와 2000년대초를 상기해보자.

나의 붓이 이 년대들에로 거슬러오름은 바로 이 시기에 나라들의 존망과 직결되고 세계평화와 관련된 중대문제가 전세계를 우려와 불안에 잠기게 하고있었기때문이다.

어떻게 하여야 제국주의자들의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꺾어진 창으로 만들고 나라를 영구성벽처럼 만들수 있단 말인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여야 나라의 평화, 세계평화가 끊임없이 수호될것인가.

이 중대한 문제는 43일간의 첫번째 이라크전쟁을 보며 터지기 시작하고 78일간의 유고슬라비아폭격과 2개월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21세기초의 두번째 이라크전쟁을 보며 더욱 심각해졌다.

모든것이 절망적인것으로 보이던 그 시각에 동방조선으로부터 정치광명의 빛발이 어둠을 뚫고 전세계에 비쳐갔다. 그 정치광명이 바로 김정일동지의 명저 《선군혁명로선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로선이며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였다.

로어로 출판된 이 명저를 모스크바의 한 창작실에서 탐독하던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을상싶지 않다.

나는 모스크바신문 《자브뜨라》에 실은 조선의 선군정치에 대한 론문에서 그 순간의 심중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바 있다.

— 과연 세계정치사에 이처럼 거대한 변혁적의미를 담고있는 정치가 그 어느 시대, 그 어느 나라에 존재하였던가. 이끼가 덮인 력사의 모든 정치들과 오늘 세계의 구름낀 정치들과는 완전히 구획을 짓는 이 선군정치는 가장 위대한 정치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을 초석으로 하는 선군정치리론으로 오늘의 세계와 시대가 제기한 문제에 명쾌한 대답을 주시였다. 그분께서는 중동과 발칸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평양에 계셨지만 모든것을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다 밝혀주시였던것이다.

함축하건대 선군, 바로 이것이 그분께서 오늘의 세계, 오늘의 시대에 주신 대답이였다.

력사의 대양에 닻을 올려보자.

지나온 력사는 침략의 총소리가 들려온 다음에야 두손에 총을 잡게 하는 정치, 침략의 총탁이 나라의 대문을 들부신 다음에야 총과 대포를 만들게 하는 정치였다. 나라의 망국사도 평화의 파괴도 여기로부터 시작되였던것이다.

세계정치사는 조선의 새로운 조국수호의 정치, 세계평화수호의 정치인 선군정치의 큰 종소리로 하여 깊은 잠에서 깨여났다.

김정일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벌써 시작하시고 구현해오시였으며 1990년대에 전면적으로 펼치신 선군정치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을 국사중의 국사, 제일국사로 천명하시였다. 군사선행, 참으로 옳은 주견이시다. 그분께서는 군사선행을 조국수호의 근본담보, 침략과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보시였다. 정치사의 대발견이였다.

그분의 선군정치론은 군사력강화에서 정신력을 특별히 중시한다.

세계의 군력사, 전쟁사의 페지들에 눈길을 돌려보면 수세기동안 《무기만능론》이 지배하여왔다. 현대에 와서는 미싸일과 핵무기가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리론이 세계군사계를 지배하고있다고 본다.

물론 이 지배적인 무기만능론에 의혹을 가지면서 군대의 정신력에 일정하게 주목을 돌려온 군사가들과 정치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군인의 정신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군대의 전투능력을 평가하는 요소들중의 하나로만 보았다.

고대병법가 손자도 그러했고 근대 도이췰란드의 군사리론가인 클라우제비츠도 그러했으며 20세기 전쟁학자인 데오돌로프도 그러했다.

여기에 흥미있는 분석자료가 있다. 로一프전쟁을 기본주제로 한 대장편소설 《전쟁과 평화》 제4부에서 레브 똘스또이는 《군사력은 군사수에 그와는 다른 무엇 즉 미지의 X를 곱한것과 같다.》고 쓰면서 《이 X는 군대의 사기이다.》라고 피력하였다.

다음의 일화를 더 첨부하고싶다.

나뽈레옹은 로씨야군앞에 손을 든 후에야 군대의 정신력의 가치를 부분적으로 실토하였지만 그는 원래 검의 숭배자, 정신의 경시자였다.

그가 로씨야원정에서 대참패를 당하고 빠리로 패주하여가면서까지 책을 보는 병사에게 군인이 책을 보면 그 누구든 군법회의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것을 모른단 말인가고 크게 웨쳤다는 일화가 전해지고있다.

허나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론에서 군인의 정신력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정신력의 내용에 완전히 새로운 변혁적의미를 부여하시였다.

그분께서는 군사적위력을 군사기술기재의 위력과 사상정신적위력의 통일로 보시면서도 여기에서 결정적인 의미, 선차적인 의미를 사상정신적위력에 두시였다.

검은 꺾을수 있지만 정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다는것이 선군정치론이 주장하는 군사적힘의 철학이다.

2012년 4월 15일 나는 조선인민군의 정신력의 거대한 위력을 깊은 감동속에 체감할수 있었다. 때문에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성대히 진행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경축열병식을 나는 오늘도 자주 돌이켜보군 한다.

조선인민군의 정신력에서 받은 충격의 하나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된것이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그 시각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는 조선을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의 포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전쟁력사상 군사연습에 동원된 군대가 불의에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로 이행한 례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있었다.

허나 평양에서는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고있었다.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세계를 향해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과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계승의 의지를 선포한 중대연설이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분께서 하신 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천하를 진동케 하였다.

이어 장엄한 열병식이 있었다.

열병식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해보려는 미국을 정신적으로 제압하고있었다. 평양을 찾아온 동서방의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은 이 소식을 특대뉴스로 전하면서 조선의 정신력의 위력을 격찬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정신력에서 받은 충격의 하나는 준엄한 정세속에서 열병식이 성대히 진행된것이였다.

행사가 진행되는 그 시각 군사분계선 남쪽에서는 조선을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의 포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전쟁력사상 군사연습에 동원된 군대가 불의에 다른 나라에 대한 침공에로 이행한 례가 한두번이 아니였다.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더욱 커가고있었다.

허나 평양에서는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고있었다.

열병식에 앞서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하시였다.

세계를 향해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과 김정일동지의 선군정치의 계승의 의지를 선포한 중대연설이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에 닿았다.

그분께서 하신 연설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천하를 진동케 하였다.

이어 장엄한 열병식이 있었다.

열병식은 조선을 군사적으로 정복해보려는 미국을 정신적으로 제압하고있었다. 평양을 찾아온 동서방의 신문, 통신, 방송기자들은 이 소식을 특대뉴스로 전하면서 조선의 정신력의 위력을 격찬하였다.

조선인민군의 정신력에서 받은 충격의 다른 하나는 열병대오가 울린 함성이였다.

열병광장에서는 《김정은》, 《결사옹위》함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이 함성은 조선언론들이 주장하는 사상폭탄, 정신폭탄의 폭발이였다.

자기 령도자와 사회주의조국을 지키기 위해 한몸을 바치겠다는 조선인민군의 정신적각오를 보여주는 숭엄한 화폭이였다.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물리적폭탄보다도 더 위력한것은 조선의 사상폭탄, 정신폭탄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은 땅은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제일 큰 심장, 천만대적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는 심장을 가진 나라이다. 세상에 그 어떤 고성능콤퓨터도 조선의 사상폭탄, 정신폭탄의 위력을 계산해내지 못할것이라고 생각한다.

로씨야교수 유리 까챠놉스끼는 《검과 정신》이라는 론문에서 제일의 정신적강자가 최후의 승리자로 된다는데 대하여 주장한바 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세계에서 누가 제일의 정신적강자인가. 나는 주저없이 조선이라고 대답하고싶다.

조선인민군의 정신력이 이렇다면 검의 힘은 어떠한가.

동서방의 언론들이 열병식광장에도 나오고 조선인민군 무장장비판에도 전시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전부가 조선이 만든것이라고 찬탄하면서 평양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면모를 과시하였다고 전한 사실로 조선의 검의 위력에 대한 나의 소감을 대신하고저 한다.

열병식을 경탄속에 바라보는 나의 심중은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를 담보하는 이 조선의 무한대한 사상정신적위력이나 군사기술적위력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선군정치가 가져다준것이라고 말하고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수 없었다.

수천년세월 침략과 전쟁으로 인한 불의 바다, 피의 바다속에서 무서운 재난을 겪으며 살아온 인류의 최대의 소원과 갈망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영원한 평화였다. 인류는 이 평화를 수천년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오지 않았던가.

허나 영원한 평화는 끝내 오지 않았고 침략과 전쟁을 막고 평화를 가져다주는 정치도 없었다.

바로 그 정치가 조선에서 탄생하여 조국수호와 세계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하여오지 않았는가.

수천년 세계정치사에 얼굴을 내민 제국들의 《평화정치》들이란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것이였다. 그것들은 평화라는 비단보자기를 씌운 침략정치, 전쟁정치였다.

군사력최우선강화로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만드는 선군정치야말로 참다운 애국의 정치인 동시에 숭고한 평화수호의 정치가 아니겠는가.

오늘 제국주의세계에서 떠드는 《평화정치》에서의 총은 침략과 전쟁, 파괴와 략탈, 인간증오의 총이라면 조선의 선군정치에서의 총은 자위와 평화, 창조와 건설, 인간사랑의 총이다.

력사서적들의 페지들을 번져보면 조선은 수천년세월 평화를 열렬히 사랑해온 나라이다. 1898년 로씨야작가 미하일롭스끼는 조선을 탐방하고 돌아와 로씨야출판물에 낸 글에서 조선사람들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민족이라고 썼다. 그가 오늘 다시 조선을 찾는다면 선군정치라는 《황금보검》을 가지고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있으며 평화의 하늘밑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성공탑을 높이 쌓아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앞에서 찬탄의 붓을 또다시 들었을것이다.

로씨야에는 이런 뜻깊은 말이 있다.

암흑이 대지를 뒤덮었을 때에는 오직 번개의 섬광만이 어둠을 환히 비쳐줄수 있다.

세계평화를 항시적으로 위협하고있는 어지러운 침략정치, 전쟁정치가 존재하며 나라들의 앞길에 어둠을 가져오고있는 이 시각에도 조선의 선군정치의 섬광이 이 행성을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쳐가고있다.

오늘 조선에서는 김정일동지의 조국수호의 정치, 세계평화수호의 정치인 선군정치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계승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비범한 령도로 경제건설에 힘을 집중하시여 나라의 곳곳에 웅장화려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우시면서도 군부대시찰의 길을 쉬임없이 걸으시며 조국수호, 세계평화수호를 위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신다는 소식들은 세계를 격동케 하고있다. 동서방의 언론들이 이 중대소식들에 초점을 모으고있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평양이 전하는 새로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젊으시면서도 가장 걸출하신 령도자로 칭송받고계시는 김정은동지께서 명저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자》를 발표하시였던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사상과 선군정치의 계승의 의지를 선언하신 이 명저는 세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있다.

이 사실앞에서 나는 김정은동지의 출중한 정치실력과 선군정치의 계승의 의지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백전백승의 력사는 세기와 세기를 이어갈것이며 그 백승은 앞으로도 조선의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수호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적인 주장을 내세우게 된다.

참으로 절세의 위인들이신 김일성동지,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는 조선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세계평화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다.

글을 마감짓는 이 시각 누가 나에게 세계앞에 하고싶은 말이 무엇인가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저 한다.

— 21세기의 앞길을 밝혀주고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광명은 김정은동지에 의해 더 밝게 비쳐질것이다.

이것은 력사가 증명해줄것이다.

세계력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평화수호에 기여한 거대한 업적을 자기의 성스러운 성벽에 금문자로 새겨넣을것이며 후세력사가들은 세계전쟁사가 아니라 세계평화사만을 저술하는 새시대를 반드시 맞이하게 될것이다.

(필자는 로씨야작가임)

조국의 푸른 하늘은 금성철벽이다

뜻깊은 항공절을 맞으며

수령결사옹위의 항로따라 승리떨치리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랜 평양이 있다.

뜻깊은 항공절을 맞이한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의 가슴속에서는 이런 신념의 웨침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려나오고있다.

지난 6월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및 반항공군의 어느 한 군부대의 비행훈련을 지도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언제나 조국의 하늘을 믿음직하게 지켜 날고있는 비행사들의 항로에 마음을 두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태양이 가리켜준 항로를 따라 자랑찬 승리와 영광만을 떨치며 우리의 비행사들이 새겨온 불멸의 위훈은 조국의 푸른 하늘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이 키운 사상과 신념의 강군이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혁명적이고 조직된 전투대오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태여난 우리의 항공무력은 《공중우세》를 뽐내는 미제와 맞서 인류전쟁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운 비행사들속에는 하늘의 두 호위병으로 영생하는 김화룡, 강승현동무들도 있다.

부대에 찾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닌 김화룡, 강승현동무들은 수령님을 목숨으로 보위하는 길에서 한목숨 서슴없이 바칠 굳은 맹세를 가다듬으며 비행훈련을 진행하고있었다.

이때 수화기에서 《적기래습》하는 다급한 웨침소리가 울려나왔다.

그들은 긴장한 눈길로 앞을 주시했다. 적기들을 쏘아보는 그들의 심장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울 불같은 열의가 끓어번지였다. 치렬한 공중전투가 시작되여 얼마후에 또다시 새로운 적기편대들이 나타났다. 공중에서는 순간적으로 너무도 엄청난 력량상차이가 생기였다. 그러나 김화룡, 강승현동무들은 추호의 동요를 몰랐다.

어버이수령님을 결사옹위할 신념과 불타는 적개심이 가슴속을 꽉 채웠다. 김화룡, 강승현동무들은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워 여러대의 적기들을 격추시키고 인민군비행사의 용맹을 떨치였다.

그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두 비행사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전쟁이 시작되여 한달동안에 적비행기 5대를 떨구는 위훈을 세운 공화국영웅 리동규동무와 《하늘의 제왕》이라고 우쭐대던 미공군장교놈이 탄 비행기를 단방에 격추시킨 19살의 나어린 비행사,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 우리는 적함에 동체육박한다. 김일성장군만세!》라는 마지막전파를 날리고 비행기로 미제의 구축함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은 한계만, 김정흘비행사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을 보위하기 위하여 한몸이 그대로 성새가 되고 방패가 되여 불사조처럼 싸운 항일혁명투사들처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싸운 이런 영웅비행사들이 있었기에 우리 항공무력은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보기 좋게 꺾어놓고 조국의 하늘을 철벽으로 지킬수 있었다.

우리의 항공무력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손길아래에서 하늘의 강군으로 억세게 자라나 조국의 령공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 우리 비행사들의 가슴속에서 끓어번지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얼마나 숭고하고 열렬한것인가는 1990년대 조국이 낳은 하늘의 자폭용사 길영조영웅의 정신세계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탈출하라!》는 구령을 받은 순간에 비행기에서 뛰여내리면 생명을 구할수 있었으나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여 기꺼이 한목숨을 바친 영웅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지금 우리의 비행사들은 태양이 없이는 조국의 맑고 푸른 하늘도 없듯이 사회주의조선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존엄높은 조국도 있고 행복한 인민의 생활도 있다는 진리를 심장속에 더욱 깊이 새겨안고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번개처럼 적진을 죽탕치고 정일봉우뢰처럼 원쑤의 본거지를 송두리채 뒤집어버리고야말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당과 수령을 위한 충정의 항로, 원쑤격멸의 항로만을 골바로 날을 굳은 신념과 의지를 가슴속에 만장약한 우리의 영웅적 비행사들이 있어 내 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맑고 푸를것이다.

본사기자 조 경 철

용감한 매, 하늘의 결사대

저녁어스름이 깃들무렵이다. 끝없이 뻗어간 활주로우에 불빛이 반짝인다. 순간 은빛날개들이 번뜩인다. 금시라도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를듯 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우리의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킬것이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이 침해당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다.》

그 은빛날개들을 보느라니 언제나 우리 비행사들의 항로에 마음을 두고있다시며 그들의 비행 훈련도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도 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떠오른다.

얼마전 한 항공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행사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며 잘한다고 치하해주시고 비행사들의 생활을 세심히 알아보시며 다심한 어버이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길영조영웅을 수령결사옹위의 전형으로 변함없이 내세워주시고 영웅비행사의 정신과 넋을 이어가라고 그의 아들을 아버지가 섰던 초소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우리 비행사들을 위해 바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이 그대로 억센 나래가 되여 비행사들은 두려움을 모르는 하늘의 매들로 자라나게 되였다.

우리의 날개우엔 태양이 있고 우리의 날개아랜 평양이 있다는 총정의 신념을 간직하고 언제나 사회주의조국의 푸른 하늘에 마음을 얹고 사는 우리 비행사들!

비행기정비는 념려말라는듯 정열을 다해 맡은 일을 해제끼는 정비원들의 모습은 또 얼마나 미더운가.

어느덧 활주로우에는 어둠이 깃들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고 비행사들과 정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앉는다.

…

내 마음 훨훨 어데로 가나
구름너머 그리운 장군별님께
…

누군가 선창을 뗀 노래가 어느덧 합창으로 이어진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언제 어디서나 조국의 푸른 하늘을 목숨바쳐 지켜갈 맹세를 가다듬는 그들이다.

《이제 저 용감한 매들이 찬란한 오각별 빛나는 은빛날개를 활짝 펼치고 적진으로 육박하여 멸적의 불소나기를 퍼붓는 날엔 원쑤들이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말것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비행사들과 정비원들을 바라보며 우리와 만난 한 장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원쑤놈들이 제아무리 우리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미쳐날뛰며 해마다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핵공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대규모적인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지만 백두산혁명강군의 용감한 매, 하늘의 결사대가 있어 우리 조국의 하늘은 금성철벽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용감한 매, 하늘의 결사대!

그들은 오늘도 래일도 이 영예로운 칭호를 안고 수령결사옹위의 항로만을 힘차게 날으리라.

본사기자 오 은 별

불패의 반항공무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이며 인민군대의 사명은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에 대한 자행고사로케트사격이 시작되였다.

훈련장상공에 적의 《토마호크》순항미싸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었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을 단방에 박산냈다.

화력진지들에서 터져오르는 《만세!》의 함성소리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

이것은 지난 3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싸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케트사격훈련을 진행한데 대한 보도의 한 토막이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명중이요, 정확히 단발에 명중했소, 통쾌하게 명중했다고 하시면서 자행고사로케트에 대한 성능검열도 만족하게 평가한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적들이 《우월한 무기》라고 그처럼 요란스레 떠드는 《토마호크》순항미싸일은 미제가 저들의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지난 여러 침략전쟁들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한 악명높은 무기이다.

언제인가 한 외신은 순항미싸일은 오늘날 미국의 대외 및 안보정책을 뒤받침해주는 《선택의 무기》로 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한 무기가 우리의 위력한 자행고사로케트에 의해 순간에 박산나고마는 가슴후련한 장면을 보면서 온 나라 천만군민은 적들의 그 어떤 《우월한 무기》도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앞에서는 부나비신세를 면치 못하며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우리의 백두산혁명강군은 영원히 승리만을 떨쳐갈것이라는 신념을 더욱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슬하에서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의 미더운 반항공무력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국의 령공을 믿음직하게 지켜선 하늘의 방패로 그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항공절을 맞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체 장병들의 가슴마다에서는 지금 적들의 순항미싸일이든, 대륙간탄도미싸일이든, 전략폭격기이든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다지고다져온 무진막강한 선군의 위력으로 오만무례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안길 결사의 각오가 활화산처럼 끓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끝없이 충직하고 주체적인 전법과 전술,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군사기술장비로 무장된 이런 일당백용사들이 지켜서있기에 내 조국의 하늘은 언제나 금성철벽인것이다.

본사기자 리 남 호

혁신청년광산에서

훌륭히 꾸려진 문화시설들

혁산청년광산마을에 문화시설들이 훌륭히 꾸려져 광산마을주민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입니다.》

몇해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산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면서 현대화의 모범광산인 3월5일청년광산처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광산마을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로동계급의 선진문화가 활짝 꽃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우리의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광산의 책임일군들은 문화회관개건과 로라스케트장, 오락장건설을 적극 내밀었다.

공사를 책임진 일군들과 설계원들은 광산에서 건설하는 문화시설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짧은 기간에 설계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사에 동원된 건설자들은 선하부구조, 후 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켜 기초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한데 이어 불가능을 모르는 창조정신으로 건축공사를 다그쳤다. 그리하여 공사는 얼마 안되는 사이에 성과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된 혁산청년광산문화회관에는 500석능력의 관람석과 번듯하게 꾸려진 무대, 예술소조실과 영사실이 있다. 아름다운 빛을 뿌리는 무리등들이 설치된 홀과 복도도 조형예술적으로 잘 조화되여 볼수록 황홀감을 자아내고있다.

개건된 문화회관에서는 혁산청년광산 기동예술선동대원들과 각 갱과 직장예술소조원들의 《조국찬가》합창경연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문화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광산마을에는 또한 2000㎡의 면적을 가진 로라스케트장과 80㎡의 오락장도 건설되였다.

훌륭한 설비들과 시설을 갖춘 로라스케트장과 오락장에서 랑만과 희열에 넘친 광부들의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고있다.

지금 광산의 일군들은 광산마을에 물놀이장을 더 건설하여 광부들의 문화생활에 더욱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체육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이 체육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의 드높은 열의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나라의 체육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집단은 종목별선수들의 훈련과 경기를 과학화하고 운동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력기훈련과학화지원프로그람, 마라손기록평가프로그람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람들을 개발하였다.

조선체육대학, 관모봉체육단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도 활쏘기운동능력지원체계 등을 만들어 선수들의 육체, 기술적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훈련조종을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게 하였다.

체육기자재들과 측정기구들을 높은 수준에서 국산화할수 있는 과학적토대가 마련되였다.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만든 경기복과 마라손화, 빙상호케이, 빙상휘거스케트날, 레이자조약측정기구는 우리 선수들의 체질적특성에 맞고 착상이 기발한것으로 하여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체육영양연구소와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등에서도 체육의약품들과 영양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성과를 거두고있다.

체육선수들의 피로회복을 촉진시키는 음료 등은 선수들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 생화학적변화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운동성질병들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고있다.

체육부문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최첨단돌파로 주체적체육발전에 이바지할 일념안고 체육과학연구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손님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28일 키라샤 파울린 대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시대와 인류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서 그들은 대원수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그들은 훈장보존실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였다.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단장은 조선인민은 자기 수령들을 끝없이 경모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업적은 조선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을것이다고 썼다.

애국의 마음안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제1작업반 분조장 림호준동무는 쌀로써 당을 받들어갈 애국의 마음안고 수십년동안 실농군으로 성실하게 일해오고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원화땅에 삶의 뿌리를 내린 때로부터 지난 30여년간 그는 누가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땅에 진심을 묻으며 살아왔다.

분조장이 된 후에는 뜨거운 인정미로 분조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었고 분조를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집단으로 꾸리기 위해 애써왔다.

그는 매일 작업을 빈틈없이 조직하고 로력배치를 잘하여 분조농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림호준동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조에서는 집단적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해마다 농장적인 분조별사회주의경쟁에서 언제나 앞장섰다. 또한 전투력있고 실적이 높은 분조로 자랑떨치였다.

그는 오늘도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할 한마음안고 분조의 앞장에서 맡은 일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로농통신원 한 우 일

전국기초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기초과학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기초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수학, 물리, 레이자, 지리, 력학, 생물공학, 생물, 정밀유기화학부문으로 나뉘여 열린 발표회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리과대학,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연구론문 600여건이 발표되였다.

참가자들은 기초과학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튼튼한 과학기술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하였다.

수학, 지리부문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물리부문에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레이자부문에서는 국가과학원 레이자연구소, 력학부문에서는 리과대학, 생물공학부문에서는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 생물부문에서는 국가과학원 국가균주보존연구소, 정밀유기화학부문에서는 리과대학 화학생물연구소 등의 단위들에서 발표한 론문들이 우수하게 평가되였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참가자들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영원한 청춘으로 빛나는 삶

박천군 송도협동농장 제1작업반 2분조 농장원이였던 한광복동무

우리 시대 청춘들의 삶은 무엇으로 빛나는가.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위급한 순간에 자기의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박천군 송도협동농장 제1작업반 2분조 농장원이였던 한광복동무의 고결한 정신세계에서 찾아보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 어느날이였다.

며칠동안 억수로 쏟아져내린 무더기비로 작업반이 담당한 도로구간이 심하게 파괴되였다. 이날도 남먼저 도로복구전투장으로 달려나간 한광복동무는 분조의 농장원들과 함께 산비탈에서 도로복구에 쓸 막돌과 흙을 채취하고있었다. 그들의 뒤에서는 다른 농장원들이 물도랑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결싸게 삽질하던 한광복동무는 한순간 산비탈에서 바위돌이 움쎌하는것을 보았다.

《피하라!》

그는 폭발적인 힘으로 함께 일하던 농장원을 옆으로 밀쳐버렸다. 그리고는 굴러내리는 바위돌을 향해 몸을 날렸다. 눈깜박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함께 일하던 농장원들은 구원되였으나 심한 타박상을 입은 한광복동무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한발자욱만 옮겨짚었어도 그는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한몸을 바쳐 혁명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되였던것이다.

한목숨바쳐 혁명동지들을 구원한 한광복동무,

그는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우리 시대 청년들이 지니고있는 고상한 정신세계가 얼마나 높은가를 자기의 실천적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하다면 평범한 농장원이였던 한광복동무가 어떻게 되여 그렇듯 영웅적인 행동을 할수 있었는가.

이 땅에서 태여난 청춘들모두가 그러하듯이 그도 당의 품속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당시)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평범한 청년이였다.

처음 농장에 진출하였을 때 그는 한동안 농사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였다.

그러한 그를 청년동맹조직과 농장의 초급일군들은 농사일을 잘해나가도록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었다.

분조장을 비롯한 초급일군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우리 시대 청년들은 삶을 어떻게 빛내여야 하는가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주며 그가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진심으로 이끌어주었다.

언제인가 한광복동무는 작업의 쉴참에 분조장에게 자기도 당원이 될수 있는가고 물은적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성격이 과묵하고 말이 적은 그가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이였다.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던 분조장은 당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다면 당원이 될수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분조장의 이야기에서 신심을 얻은 한광복동무는 당원들처럼 살며 일해나갈 굳은 결심을 품고 청년동맹조직생활에서 모범을 보이고 농사일의 앞장에 서기 위해 애써 노력하였다.

그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 섰으며 동지들을 위한 일에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다.

언제인가 농장에서 논흙깔이 전투를 진행할 때에도 그는 이른새벽부터 농장벌에 달려나가 밤늦도록 많은 흙을 실어날랐으며 모내기철에는 제일 힘든 모짐운반을 도맡아하여 농장원들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비단 농사일만이 아니였다.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린 날이면 남들보다 먼저 도로에 달려나와 자동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을 말끔히 치군 하였다.

언제인가 분조에서 함께 일하는 한 농장원이 몸이 아파 작업에 나오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그는 하루일을 마치고 그 농장원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는 약도 먹여주고 간호도 해주며 한밤을 꼬박 새우기도 하였다.

이때만이 아니였다.

언제인가는 어머니와 토론하고 부모잃고 생활하는 한 농장원의 집에 제 집식량을 아낌없이 퍼주었고 농사일에 성수를 내지 못하고있는 동무를 진심으로 도와주어 그가 농사일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신보다 동지들을 위해주는 한광복동무를 두고 분조원들은 물론 마을사람들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기에 그의 희생을 두고 분조원들과 마을사람들은 정말 아까운 청년을 잃었다고 슬픔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의 생은 비록 길지 않았지만 온 농장이 동지들을 위해 자기 한몸을 서슴없이 바친 한광복동무를 잊지 못해 추억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한광복동무의 소행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으시고 그를 온 나라가 다 알도록 내세워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진정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당의 품이 있기에 평범한 농장원이였던 한광복동무의 삶은 영원한 청춘으로 값높이 빛나고있는것이다.

특파기자 송 창 윤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키라샤 파울린 대리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간다전국녀성리사회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고 김일성주석의 혁명생애와 일가분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주석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였다.

만경대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곳이다.

대표단은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과 수영관, 문수물놀이장,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등을 참관하였다.

몽골에 갔던 최고인민회의대표단 귀국

몽골에서 진행된 동북아시아나라 녀성국회의원들의 회의에 참가하였던 김성희대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최고인민회의대표단이 28일 귀국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문 일군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이 마중하였다.

중국에 갔던 체육성대표단 귀국

중국에 갔던 손광호부 육성대표단이 28일 비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 행기로 귀국하였다.

중국을 방문하였던 민주조선사대표단 귀국

중국을 방문하였던 전정호부주뢸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조선사대표단이 28일 귀국하였다.

평양역에서 박순철 민주조선사 부주뢸이 마중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독재《정권》의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지금 공화국북반부의 각계층 인민들은 사회적정의와 민주주의수호를 위하여 반독재투쟁에 분연히 궐기해나선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그들과 한전호에 선 마음으로 파쇼광들에 대한 격노의 함성을 터치고있다. 사회의 민주주의 적발전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향과 력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유신》 독재를 되살리는 피뢰패당의 망동을 추호도 용납치 않으려는것은 온 겨레의 굳센 의지이다.

파쇼독재에 의존하고있는 반역《정권》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독재는 인민을 등진자들의 통치방식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의 독재정치는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한줌도 못되는 재벌들과 특권족속들의 리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반동정치이다. 절대다수 근로대중의 리익을 떠나 극소수 특권계층의 리익만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정치로 될수 없다. 민주주의와 파쇼독재는 절대로 량립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집권세력의 파쇼통치하에서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유린당하고있으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다. 보수패당의 반인민적악정으로 말미암아 오늘 남조선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악은 더욱 심화되고있으며 인민생활은 도탄에 빠졌다. 교육은 시장화되고 모리간상배들의 돈벌이 공간으로 되였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뛰여오르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빚쟁이로 전락되고있다. 실업자들이 거리와 골목에 차넘치고 모진 생활난을 못이겨 자살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속에 남조선은 자살률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있다.

그뿐인가. 지금 남조선정국을 뒤흔들고있는 피뢰정보원의 선거개입사건과 내란음모사건, 북남수뇌상봉담화록사건, 광란적인 《종북세력척결》 소동 등은 보수패당의 반역적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보수패당의 망동은 시대의 전진에 대한 력사의 반동들의 발악적도전으로서 낡고 부패한 반역정치를 끝장내고 새 정치를 념원하는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며 모독이다. 남조선의 각계층 진보세력들속에서 파쇼독재《정권》을 심판할데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광범한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진출이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다.

피뢰집권세력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은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한 수치스러운 과거를 재현하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희세의 파쇼교형리로 악명을 떨친 《유신》 독재자는 인민들의 지향을 가로막고 장기집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 어떤짓도 서슴지 않았다. 반인민적인 《유신》 독재체제에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혹한 탄압의 대상이 되여 억울한 생죽음을 당하였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민혁명당사건을 비롯하여 남조선적화공작단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동부베를린사건, 전국민주학생련맹사건, 전국민주로동자련맹사건 등은 오늘도 파쇼도당의 치떨리는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수많은 무고한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이 교형리들이 식은 죽 먹듯이 조작해내는 간첩단사건의 희생물로 되여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남조선은 그야말로 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민주의 폐허지대, 암흑천지로 화하였다. 극악무도한 파쇼통치로 남조선을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만든 《유신》 독재자는 그 죄악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30여년세월이 흐른 지금 그 후예들에 의해 악몽같은 《유신》 독재가 또다시 부활되고있다.

정보원과 군부, 검찰,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과 우익보수언론들을 총발동하여 여론조작과 민심기만으로 집권한 피뢰패당은 권력의 자리에 앉자마자 《종북세력척결》을 부르짖으며 남조선사회를 철창없는 감옥으로, 민주의 폐허지대로 만들고있다. 자주통일의 앞장에 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전면말살의 위기에 놓이고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 전국공무원로조(전공로), 《자주민보》를 비롯한 진보운동단체들과 언론들이 무차별적으로 탄압당하고있다. 지어 파쇼도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을 《종북》으로 몰아 박해하고 제2야당인 통합진보당을 강제해산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더욱 경악스러운것은 파쇼광들이 시위군중을 진압하기 위해 폭압수단과 규칙을 더욱 강화하고 인민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마구 쏘아대며 《유신》 독재시대에나 볼수 있었던 피비린 광경을 재현하고있는것이다.

21세기의 오늘에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로 더더욱 전락되고있는 비극적현실을 두고 남조선언론들은 물론 외신들까지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1년도 안되는 사이에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남조선을 《독재시대로 이끌고있다.》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폭력과 압제에 매달리다가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 《유신》 독재자처럼 현 집권세력의 운명도 결코 오래갈수 없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피뢰정권의 위기가 날로 더욱 심화되고있는 현실은 반역패당의 파멸의 불가피성을 실증해주고있다.

지금 피뢰패당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교집스러운 반역정책에 매달린 덕을 톡톡히 보고있다. 서울과 광주, 부산을 비롯한 남조선의 전지역에서는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 로동자와 농민,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광범한 인민들의 《유신독재부활반대》, 《공안탄압분쇄》, 《박근혜정권퇴진》 구호가 강력히 터져나오고있다. 특대형부정선거로 권력을 강탈하고 보수《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해 진보민주세력말살에 미쳐날뛰는 《유신》 잔당들을 규탄하는 대규모적인 집회와 시위, 시국선언발표, 성토대회, 초불집회, 삭발식과 단식롱성, 시국미사 등 대중적투쟁이 날로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보수패당의 반역정치에 철추를 안기려는 남조선민심이 무서운 용암마냥 세차게 이글거리는 속에 현 피뢰집권자의 지지률은 계속 하강선을 긋고있다. 이것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역적패당을 청산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세상을 안아오려는 남조선민심의 견결한 의지를 반영한것으로서 보수패당을 전률케 하고있다.

사실상 반역패당은 저들에게 언제 파멸의 철추가 내릴지 몰라 발편잠을 못 자고있다.

파쇼독재는 더이상 보수패당의 호신부가 아니다. 파쇼도당은 제손으로 제눈을 찔렀다. 지금 피뢰패당이 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모지름을 쓰고있지만 그것은 소용없는짓이다. 견결한 반독재투쟁으로 역적무리들의 식민지파쇼통치에 심대한 타격을 가한 남조선인민들의 자랑찬 투쟁전통은 오늘도 이어지고있다.

파쇼독재《정권》의 파멸은 력사의 필연이다.

김 향 미

용암처럼 이글거리는 민심의 분노

◇ 남조선의 각계각층이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에 광범히 궐기해나서고있다.

지난 19일 남조선의 민주로총, 농민회총련맹, 빈민련합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 송전탑건설저지 밀양대책위원회, 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 등 단체들은 대표자회의를 열고 다음달 7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수만명 군중이 참가하는 대규모적인 《박근혜정권규탄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시국대회의 요구안으로 총체적대선개입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통합진보당강제해산저지, 전교조설립취소철회는 물론 비정규직철폐와 쌀시장전면개방반대, 기초년금공약리행 등 20여가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문제를 당국에 제기하기로 합의하였다.

민주로총 위원장은 《이번 시국대회는 투쟁동력을 조직하고 반박근혜전선을 확장해나가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로총은 시국대회를 시작으로 12월 내내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강력한 반《정부》투쟁의지를 피력하였다. 민주로총은 시국대회에 맞추어 지역별총파업을 벌릴것을 결의하였다. 그밖에 농민회총련맹 의장 등도 피뢰당국의 반역적악정을 폭로단죄하면서 《7일 시국대회를 기점으로 가난한 서민들이 죽음에로 내몰리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공세적인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하면서 《박근혜정부가 비상시국대회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보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통합진보당도 《민주수호 진보희망뻐스》 창설식을 가지고 12월 6일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순회투쟁을 벌리면서 현 《정권》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을 낱낱이 폭로하고 《정권퇴진》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릴것이라고 선언하였다.

◇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은 피뢰당국의 독재통치에 대한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다.

국우보수세력은 온갖 기만과 희세의 모략으로 권력의 자리를 가로타고앉자마자 독단과 전횡으로 인민대중의 권리와 요구를 가차없이 짓밟으면서 파쇼독재와 반인민적악정만을 강행하였다.

피뢰당국은 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할데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정치적반대파들을 박해, 탄압하고있다.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이 중세기적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며 지어 지난 《대통령》 선거당시 야당후보를 지지하였다고 하여 전국공무원로조에 대한 정치적보복까지도 거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판이다.

피뢰들은 선거당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귀맛좋은 공약들을 헌신짝처럼 쉐던지고 《경제활성화》의 간판밑에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추진시키는 등으로 근로대중의 등껍질을 벗겨 독점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주고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생존권투쟁에 나선 근로대중을 폭력깡패들과 물대포를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남조선과 같은 민주의 불모지, 파쇼폭압의 란무장에서 인민대중이 반《정부》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이 아니겠는가.

인민대중의 거세찬 투쟁열기로 하여 지금 남조선은 분노의 용암이 이글거리는 거대한 분화구로 전변되여가고있다.

◇ 투쟁의 불길은 끌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지펴올려야 한다.

파쇼당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짓밟고 집권기반을 다지기 위해 폭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무자비한 철권으로 민주의 싹을 철저히 짓밟아 온 남조선땅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전락시키고 독재의 향연을 베풀려고 날뛰는것이 바로 《유신》의 피줄을 물려받은 현 보수집권세력이다. 분노의 함성이 높아갈수록 파쇼의 칼부림은 더욱 사나와질것이다.

견결한 반독재투쟁에 진보민주세력의 승리가 있다.

독재에 굴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목표를 향해 완강하게 돌진하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자랑스러운 기질이고 전통이다. 민주를 부르며 독재의 아성에로 돌진한 4.19용사들의 넋을 이어 반《정부》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독재통치를 끌장내야 한다.

단결이자 힘이고 승리의 비결이다.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정견과 소속의 차이를 뛰어넘어 대중적이고 적극적인 련대련합을 실현할때 진보민주세력은 국우보수세력을 타승할수 있다.

견결한 반독재민주화투쟁에 남조선인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 새 생활이 있다.

박근혜는 부정선거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보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피뢰패당의 부정협잡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 각계층에 대한 피뢰보수패당의 파쇼폭압이 더욱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28일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54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에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때 피뢰패당이 관권을 동원하여 저지른 전대미문의 부정협잡행위를 규탄하는 각계층의 투쟁이 날로 세차게 벌어지고있으며 그것은 박근혜퇴진투쟁으로 확대발전되고있다.

특히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관권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국미사를 통하여 박근혜퇴진을 주장한것을 계기로 남조선인민들의 박근혜퇴진투쟁은 종교계에까지 파급되여 온 남녘땅을 휩쓸고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당황망조한 피뢰보수패당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말살하려고 발악하고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를 비롯한 피뢰당국자들,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한 신부가 박근혜퇴진을 요구하는 미사에서 미국과 당국의 전쟁연습때문에 연평도포격전이 일어났다고 한 말을 트집잡아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고아대면서 《종북》몰이광란을 일으키고있다.

각계층 투쟁의 비수가 자기 목을 직접 겨누고 다가오고있는데 질겁한 박근혜는 《결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고 독기를 풍기면서 파쇼폭압에 광분하고있다.

피뢰보수패당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정당한 투쟁을 우리와 련결시켜 《종북》감투를 씌우면서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는것은 부정선거내막이 전면 드러나 속이 켕긴자들의 단말마적발악으로서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엄중한 도발이고 남조선 각계층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번에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같은 종교단체까지 박근혜퇴진을 주장해나선것은 온갖 강권과 불법으로 권력을 강탈하고 《유신》 독재부활에 미쳐날뛰고있는 피뢰보수패당에 분노한 남조선민심의 반영이고 그 분출이다.

오죽했으면 해외동포들까지 현지를 행각한 박근혜앞에서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는 구호를 들고 격분에 넘쳐 시위투쟁을 벌리였겠는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고 이쯤되면 박근혜가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여 부정협잡으로 권력을 차지한데 대해 솔직히 시인하고 력사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고대죄하기는커녕 《종북》몰이까지 하면서 탄압의 몽둥이를 마구 내휘두르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파쇼적망동인가.

피뢰역적패당이 그 무슨 《선동》이니, 《동조》니 하면서 《종북》소동을 일으키고있지만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 그들스스로의 신념과 의지에 의해 벌어지고있다는것은 4.19와 5.18, 6월인민항쟁이 잘 보여준다.

파쇼깡패들은 그때에도 그 누구의 《지령》이니 뭐니 하고 우리와 결부시켜보려고 하였으나 그 진상이 드러나 세계면전에서 망신만 톡톡히 하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 반항이 있기마련이며 불의와 불법, 파쇼독재가 판을 치는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투쟁이 일어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 세상에 남조선처럼 수십년간에 걸쳐 인민들의 항쟁이 줄기차게 계속되고 그에 의해 《정권》이 수차례나 뒤집어진 례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것은 남조선이 얼마나 사람 못살 암흑세상인가를 그대로 반증해준다.

저들에게 거슬리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종교단체에까지 《종북》의 감투를 씌우는것은 피뢰패당이 떠드는 《종북》이라는것이 순전히 정치적탄압을 위한 구실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그대로 고발해준다.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종북》을 만병통치약처럼 써먹는것은 피뢰역적패당의 상투적수법이다.

박정희도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용공》으로 몰아대며 야수적으로 탄압하다가 결국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했다.

피뢰보수패당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통합진보당처럼 《종북》으로 몰아 제2의 리석기사건을 조작해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더 큰 민심의 분노를 폭발시켜 남조선에서 대중적항거의 불길을 보다 세차게 타오르게 할것이다.

정의를 지지하고 불의를 규탄하는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량심이고 누구나 가지고있는 응당한 권리이다.

더우기 우리는 동족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피타는 절규와 정의의 목소리를 외면할수 없으며 피뢰보수패당이 우리를 걸고 《종북》소동을 일으키면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고있는데 대해 절대로 간과할수 없다.

우리는 지난날 그러하였듯이 언제나 정의와 민주를 갈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편에 서있을것이며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부정선거의 주범, 장본인은 남조선의 현 집권자이며 박근혜는 절대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유신》의 추악한 피줄을 그대로 이어받은 피뢰보수깡패들에 의해 명색상의 주권행사마저 우롱, 모독당하고 선거결과를 날조당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는 지금 폭발직전에 있다.

박근혜패당은 민심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그에 끌까지 거역해나서다가는 《유신》 독재자와 같은 비참한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현 집권자의 사퇴는 민심의 반영

남조선신문이 주장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5일 사설을 통해 현 집권자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 22일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사건을 밝힐데 대한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진상을 덮어버리려고 책동하였다고 지탄하였다.

은폐와 수사방해책동이 강화될수록 불법선거조작책임을 묻는 민중의 목소리가 커진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한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이 극단적정치세력이라느니 뭐니 하며 《종북》세력으로 몰아대고있다고 비난하였다.

터무니없는 날조로 전 《대통령》 로무현을 학살하고 내란음모사건조작으로 《종북》세력몰이에 악용한 시대착오적인 세력은 민중학살의 주범, 군사쿠데타의 후예집단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라고 단죄하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히스테리적광기를 부리는것은 대대적인 《종북》세력몰이로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부정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리려는 저들에게 있어서 방해로 되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어둠으로 빛을 가릴수 없듯이 얕은수로 부정선거의 진상을 은폐하고 민중을 속일수 없다.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의 《대통령》 사퇴요구는 거스를수 없는 민심의 반영이다.

남조선에서 강풍피해 발생

남조선의 《KBS》 방송에 의하면 25일 남조선각지에서 강한 바람이 몰아쳐 큰 피해가 났다.

건물의 지붕들이 날아나고 주차장천정이 무너져 차들이 깔리였으며 바람에 날리는 간판 등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앞바다에서는 해안가주변에 있던 배들이 좌초되였으며 그로 하여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와 환경을 오염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1차 전국집회

일본에서 진행

조선통일지지운동 제31차 전국집회가 17일 일본 후꾸오까현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의장 히모리 후미히로와 위원들, 전국집회 실행위원회 위원들, 일본각지의 우호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와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조선과의 친선을 위한 영국협회,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필리핀련대성위원회에서 보내여온 축전이 소개되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사무국장 미즈따니 겐지가 기조보고를 하였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였던 모든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미국의 반공화국책동에 당당히 맞서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경탄을 금치 못해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일본이 지난 조선전쟁에 적극 가담하였고 오늘도 반공화국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리고있는데 대하여 폭로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우리 공화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그는 날로 악랄해지는 일본정부의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차별과 탄압소동을 규탄하고 일본인민들이 조선의 평화통일과 일조국교정상화에 적극 기여할것을 호소하였다.

이어 진행된 《평화협정체결과 일조국교정상화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출연자들은 일본과 남조선피뢰당국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과 진보정당 압살소동의 비렬성을 폭로하고 북남관계, 일조관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남조선피뢰당국의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적폭거를 규탄하고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일본이 조선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할것을 요구하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간또대지진때 일제의 조직적범죄를 립증하는 자료 공개

남조선의 《국민일보》가 간또대지진때 조선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학살한 배후에 일본정부가 있음을 립증하는 자료가 공개된것과 관련하여 25일 사설을 실었다.

최근 일본에 있는 피뢰대사관에서 수십년전에 작성된것으로 알려진 일제시기의 조선인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문서가 발견되였다.

여기에는 수십명의 조선사람들의 피살경위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여있는데 그중에는 한 녀성이 일본헌병에게 총살당했다고 기록되여있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은 간또대지진때의 조선인학살만행진상을 가리우기 위해 그 책임을 《자경단》과 같은 민간단체들에 넘겨씌웠고 최근에는 이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하는 추태를 부렸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의 통수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일본헌병이 총살한 자료가 발견됨으로써 그날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사설은 이것이 당시 대학살만행에 일본정부가 직접 개입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자료에 대해 일본정부가 진심으로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이 기록을 어떻게 수십년동안이나 묵여두고있었는지 리해할수 없다고 하면서 사설은 《정부》가 이에 대해 명확히 설명할것을 요구하였다.

재일동포들
피뢰패당의 독재적망동에 항의

《재일한국민주통일련합》을 비롯한 재일동포단체들과 일본단체의 유지들로 구성된 《유신독재부활시킨 박근혜정권을 규탄하는 항의단》이 25일 일본에 있는 피뢰대사관앞에서 항의운동을 전개하였다.

항의단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는것은 이미 드러났다고 비난하면서 보수패당이 영구집권을 위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고있는 박근혜《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언명하였다.

항의단은 박근혜《정권》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책동을 즉시 철회하고 억울하게 갇힌 이 당관계자들을 석방하며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정보원해체에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가련한 패배자들의 부질없는 허세

3년전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연평도에서 선불질을 했다가 된매를 맞은 피뢰호전광들이 패전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대결망동을 부리고있다. 피뢰들이 연평도사건발생 3년을 계기로 호전적망발들을 내뱉고 각종 명목의 불장난소동들에 광분한것은 그 명백한 실례이다.

지난 22일 피뢰군부는 서해 5개 섬에 대한 그 누구의 《기습강점과 도발》에 대비한다고 떠들며 《국지도발대비》 훈련이라는것을 벌리였다.

피뢰합동참모본부의 주관하에 피뢰륙군 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참가한 가운데 감행된 이번 불장난소동에서 호전광들은 《K-9》자행포로 불질을 해대면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이 불장난소동에서 피뢰들은 《K-9》자행포, 공군전투기 《KF-16》과 《F-15K》, 전투함 등을 동원시켜 그 무슨 《립체적으로 적의 거점을 집중타격》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객기를 부리였다.

특히 호전광들은 피뢰군의 모든 부대들이 《북의 도발에 따른 대응훈련》이라는것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남조선의 전반적지역에서 살벌한 전쟁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뢰륙군 3군사령부는 다련장로케트사격훈련을, 해군작전사령부는 경비함정출항훈련을, 공군작전사령부는 전투기출격훈련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실전배치했다는 《스파이크》미싸일의 《정밀타격》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광기를 부리였다.

지금껏 피뢰호전광들은 터무니없는 《북의 도발》에 대해 떠들며 《합동전력으로 도발원점과 지원세력까지 응징》하겠다는 호전적폭언들을 탕탕 늘어놓았다. 피뢰들의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불집을 터치려고 지랄발광하는 도발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만천하에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남조선피뢰들은 연평도포격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지난해부터 연평도포격전이 마치 《북의 도발》로 발생된듯이 여론을 오도하는가 하면 지어 패전을 《승전》으로 둔갑시키면서 그 무슨 《기념》의 명목하에 대결광대극을 벌려놓고있다. 피뢰들은 연평도포격전의 패전을 만회해보려고 다련장로케트와 신형대포병레이다, 《코브라》 공격직승기와 《스파이크》 미싸일을 비롯한 타격수단들을 증강배치했다고 흰소리를 치고있다. 그런가하면 서해 5개 섬에 대한 1단계 《요새화》 공사가 끝났다면서 우리의 타격을 피할수 있게 된듯이 여론을 조성하고있다.

남조선피뢰호전광들은 고의적으로 무장충돌을 일으켜 《국지전》 상황을 조성하고 그것을 전면전쟁으로 확대하려는 무모한 계획도 짜놓았다. 피뢰들은 이미 미국이 북남사이의 《국지전》에도 개입한다는것을 모의하였다. 미제침략군의 《국지전》 개입은 곧 전면전쟁발발을 의미한다. 이번 전쟁연습은 그 모의에 따른것이다.

지난 11월 7일 김관진역도는 《국회》에서 저들단독으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그 누구를 《멸망》시킬수 있다고 고아대면서 자나깨나 《북과 대적할 생각뿐》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그에 이어 11일 연평도에 기여든 피뢰합동참모본부 의장 최윤희역도는 《3년전의 한》이니, 《간담을 서늘케 만들라.》느니 하고 객기를 부리면서 《도발원점과 지원, 지휘세력 타격》 폭언을 또다시 쉐쳤다.

연평도포격전당시에 남조선언론들은 무모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다가 우리 군대의 무자비한 불벼락에 만신창이 된 피뢰군의 몰골을 《변명의 여지없는 대참패》, 《아수라장 연평도》, 《폐허로 변해버린 참혹한 현실》, 《뻐대만 남은 군병영 구슬프다.》, 《처참하게 부서진 연평도》 등의 표현으로 일제히 전하였다. 그때 저들의 참패상황보고를 받기 바쁘게 황급히 청와대 지하실에 뛰여들어간 리명박역도는 《확전》만은 막아야 한다고 비명을 내지르고 피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는 공개석상에 나타나 《지울수 없는 뼈아픈 상처》이며 《엄청나게 큰 실망을 안겨준 사례》였다고 실토하였다.

동족대결에 미쳐 서뿔리 도발을 걸었다가 백두산혁명강군의 불벼락에 얼어맞고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던자들이 그 무슨 《멸망》이니, 《타격》이니 하고 고아대며 허세를 부리는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피뢰패당이 연평도사건발생 3년을 계기로 요란한 반공화국광대극들과 전쟁도발을 노린 불장난소동들을 미친듯이 감행한것은 그들이 동족과 한사코 무력으로 대결하며 북침의 도화선에 어떻게 하나 불을 달려 한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역적패당이 뻔뻔스럽게 《승전》나발을 불어대며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소동에 매달리고있지만 그것은 운명이 경각에 달한자들의 최후발악에 지나지 않는다.

연평도포격전은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존엄을 함부로 침해하는자들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타격전이였으며 피뢰군부호전광들에게 무모한 도발의 대가가 어떠한가를 톡톡히 가르쳐준 자주권수호자들의 통쾌한 보복전이였다.

피뢰들이 또다시 도발을 걸어온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결심이다.

피뢰들은 3년전 만신창이 되도록 얻어맞고 아우성치던 패전의 쓰라린 교훈을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현 철

거짓말을 일삼은 피뢰집권자를 비난

남조선의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거짓말을 일삼은 피뢰집권자를 비난하였다.

이날 피뢰집권자는 《국회》에서 그 무슨 《시정연설》이라는것을 하면서 《복지실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확인결과 오늘 이 시간까지 정부가 제출한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한 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집권자의 업무파악과 현실인식이 이 정도라는데 대해 놀라울따름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집권자가 내놓고 거짓말하는것은 묵과할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파쇼당국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변하지 않은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기도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미룰수 없는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오늘 미국이 국제사회앞에서 서툰 요술을 피우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재연기하는 문제만 놓고보아도 그렇다.

미군부우두머리들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문제를 물망에 올리면서 그 누구의 《위협》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련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기도를 가리우기 위해 호전광들에게는 구차스러운 변명이 필요한것이다.

최근 전 미륙군참모차장이라는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의 《첫번째 수순》이 될것이 우려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재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이전하는 경우 거기에 더는 틀고앉을 구실이 없어지기때문에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위해서는 그것을 연기해야 한다는것이다. 침략자, 강점자로서의 저들의 정체를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말이 난김에 남조선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를 력사적으로 다시금 까밝혀볼 필요가 있다.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국은 허수아비 리승만괴뢰도당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았다. 전후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그것을 휘둘러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손쉽게 실시해왔다. 미국은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은 괴뢰군에 넘기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저들이 틀어쥐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미군철수주장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높아갔다. 2007년 2월 미국과 남조선은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미국과 남조선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2012년 4월로 합의했으나 2010년에 다시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리유에서였다.

그러나 오늘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가 박두해오자 또다시 그것을 입에 올리고있다.

물론 미국은 저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괴뢰들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있다.

올해에 현 남조선괴뢰정부는 2015년말로 예정되여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시기를 연기하자고 미국에 제기하였다. 남조선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때에 남조선괴뢰들은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를 제안하였다.

괴뢰들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어떻게 하나 연기하려고 하는데는 흉악한 목적이 깔려있다.

그것은 있지도 않는 그 무슨 위협을 걸고 시간을 얻어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을 더욱 완비하는 동시에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자는것이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연기하지 못해 안달이 나하는 괴뢰들의 추태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대조선침략정책수행의 돌격대로 더욱 효과적으로 써먹을 궁리를 하고있다.

괴뢰군부우두머리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연기를 애걸한 후 미군고위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립장은 물론 《부정적》이였다. 미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예정대로 하는것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군사적측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지명자도 2015년 12월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것은 합의사항이며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남조선신문 《세계일보》는 《상당수의 미군들이 재연기요청에 〈왜?〉라고 되묻고 있다. 》고 하면서 남조선의 《전시작전통제권》의 재연기요청과 관련하여 남조선주둔 미군내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군부우두머리들이 저마끔 나서서 합의리행의 중요성을 강조한것은 하나의 연극이였다.

미국방성에서는 얼마전부터 2015년에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은 조건이 충족되여야 가능하다는 소리가 튀여나왔다. 이제 와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남조선주둔 미군철수의 《첫번째 수순》이 될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재연기할 필요가 있다는쪽으로 여론을 몰아가고있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대세의 흐름에 배치된다. 미국은 다른 지역에서는 미군철수문제를 입에 올리고있다. 그들은 정세가 완화되지 않은 이라크에서 미군전투무력을 철수하였으며 총소리가 그칠새 없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철수문제를 일정에 올리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하기는커녕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고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을 계속 유지강화하고있는것은 그들의 변함없는 침략야망을 보여줄뿐이다.

이전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월터 샤프는 《미국은 전세계방어태세를 위해 해결방법을 추구》하고있으며 그가운데서도 남조선의 《안보는 여전히 중요한 핵심분야이고 최우선적사항》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여전히 남조선주둔 미군의 핵심임무이며 〈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병력감축도 없을것》이라고 떠들었다. 그는 미군과 남조선군은 앞으로도 함께 만든 하나의 《작전계획》에 따라 움직이며 《핵우산》과 조선반도주변정보 등 《미국이 제공해온 일부 지원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쳐댔다.

이것은 남조선괴뢰들과 야합하여 기어이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미제의 변함없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모험적인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며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북침전쟁도발을 전제로 한 미군무력의 전략적배비변경과 첨단장비증강을 다그치고 있다.

미국은 올해에만 보더라도 년초부터 년말까지 남조선에 첨단군사장비들을 끌어들이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선제공격준비에 광분하며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왔다. 국제적으로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수 있는 대규모병력이 동원되여 핵전쟁화약내를 짙게 풍기고있는 곳은 오직 미군이 둥지를 틀고있는 남조선밖에 없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에 마지못해 응하는척 하면서 그 대가로 더 많은 미군유지비를 남조선에 들씌우고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연기로 남조선인민들에게 차례질것은 더 많은 미군유지비를 섬겨바치는것이며 호전광들의 광기로 인한 불안뿐이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온상이며 동북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 파괴하는 화근으로 되고있다.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것이다.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과 직결되여있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그 암적존재인 미군이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는것은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것이며 미국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된다.

몇해전 미국잡지 《포브스》는 최근년간 미국정부의 적자가 계속 불어나는데는 나름대로의 리유가 존재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하나가 다른 나라와 지역들을 미국이 《방위》해주어야 한다고 고집하는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잡지는 미국이 자기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서는 왜 부대를 창설하여 해외에 주둔시키는데 리용하는지, 왜 미군이 남조선을 《방위》하기 위해 전투를 준비하고있는지 리해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잡지는 랭전시기에는 조선반도가 미국의 리익과 직결되였다고 볼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북조선이 핵을 보유한 조건에서 수만명의 남조선주둔 미군은 북조선의 핵인질로 될뿐이며 따라서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미국언론들도 남조선강점 미군이 하루빨리 철수하는것을 마땅한것으로 여기고있음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새 세기의 흐름과 세계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시켜야 한다.

리 현 도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단장이 강조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화전국기자협회대표단 단장 류영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체류기간 우리는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신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방문을 통하여 위대한 주석의 혁명생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였다.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주석께서는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인민들을 새 조국건설에로 혁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석의 일가분들께서도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시였다.

조선인민은 김일성주석을 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은인으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만경대는 위대한 주석의 혁명력사를 전하는 곳으로 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주석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가슴깊이 돌이켜보고있다.

회세의 천출위인을 높이 모시여 조선인민은 오늘과 같은 현실을 꽃피울수 있었다.

조선인민은 위대한 주석을 끝없이 흠모하고있다.

인류자주위업수행에 쌓으신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것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 중국의 혁명가들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시였다.

조선전쟁시기 조선인민은 참으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

두 나라 군대와 인민들은 한 전호에서 어깨결고 싸워 승리를 이룩하였다.

중조친선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중국의 로세대혁명가들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두 나라는 공동의 위업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중조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고 그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조선 미국의 부당한 전제조건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미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행각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6일과 2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조선의 주변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말과 행동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고집하면서 6자회담재개를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태도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하여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 재개에는 관심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시기 6자회담들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조선이 먼저 일방적으로 양보할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자체를 거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조선에 넘겨씌워보려고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적인 책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 비핵화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조선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적대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조선은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보도사, 중국의 《환구시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보도망, 《로씨야의 소리》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오늘은 팔레스티나인민과의 세계련대성의 날이다.

1977년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는 해마다 11월 29일을 세계적범위에서 팔레스티나인민과의 련대성의 날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날을 맞으며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각종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권리를 회복하고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하고있는 팔레스티나인민에게 전투적인 인사와 굳은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민족적권리를 되찾고 독립국가창건을 위해 투쟁하는것은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이며 그것을 위해 싸우는것은 정의의 위업이다.

팔레스티나인민은 이 정의의 위업을 위해 피어린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그 무슨 《보복》을 운운하면서 군사적공격을 감행하여 수백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사살하고 유태인정착촌확장에 열을 올리고있지만 정의의 위업을 위해 떨쳐나선 팔레스티나인민의 강의한 의지와 신념을 꺾을수 없다.

중동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노력은 평화와 정의를 사랑하는 많은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

지난 9월 뽈럭불가담운동 상급회의에 참가한 100여개의 운동성원국대표단들은 팔레스티나령토에서 감행되는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국제법에 저촉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규탄하고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팔레스티나땅을 유태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를 준렬히 규탄, 배격해나서고있다.

팔레스티나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것은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팔레스티나문제는 중동평화를 실현하는데서 기본을 이룬다. 팔레스티나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중동평화를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팔레스티나인민의 요구대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이 나라 땅에서 무조건 철수해야 하며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가 회복되여야 한다.

진보적인류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편에 서있다.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흐름이다.

미국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서 아무리 발악해도 독립국가창건을 비롯하여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속에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김 철 룡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 지지

요르단국왕 아브둘라흐2세가 최근 한 서한에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립장을 재천명하였다.

독립국가를 창건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과 그들의 권리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고 서한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을 비롯한 비법적인 행위들을 저지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요르단정부는 꾸드스에 있는 이슬람교성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것이라고 서한은 강조하였다.

이란국회 우라니움농축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립장 표명

이란국회 국가안전 및 대외정책위원회 대변인이 21일 이르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우라니움농축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핵관련회담에 참가하는 이란대표들이 나라의 합법적인 우라니움농축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으며 이란정부와 인민은 그들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대표들이 이란의 붉은 선인 우라니움농축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꾸바에서 《바스떼온-2013》군사연습 진행

꾸바에서 최근 《바스떼온-2013》군사연습이 진행되였다.

4일동안 진행된 연습에는 동부와 서부, 중부의 무력들과 대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연습기간 전시상태를 가상한 훈련들과 적들의 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한 작전이 실시되였다. 이번 군사연습을 통하여 지휘부들의 준비상태와 조직력이 높아지게 되였다고 한다.

조선 미국의 부당한 전제조건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미국무성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우리 주변나라들을 행각한것과 관련하여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한 대답을 26일과 27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가 조선의 주변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말과 행동은 부당한 전제조건들을 고집하면서 6자회담재개를 가로막고있는 미국의 태도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이를 통하여 미국이 애당초 6자회담 재개에는 관심이 없다는것이 다시금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시기 6자회담들에서 공약한 자기의 의무사항들을 하나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조선이 먼저 일방적으로 양보할것을 요구하면서 회담자체를 거부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대변인은 미국이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있는 책임을 조선에 넘겨씌워보려고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조선반도핵문제를 산생시킨 근원적인 책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여 비핵화실현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할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바라지만 미국이 고집하는 부당한 전제조건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조선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미국의 적대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 핵위협이 가중되는 한 조선은 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나가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보도사, 중국의 《환구시보》,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인민망, 보도망, 《로씨야의 소리》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지지통신, NHK방송도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답을 보도하였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미계곡

벌가리아도를 보면 한눈에 이 나라의 중심부를 가로지른 2개의 산줄기가 안겨온다.

그것은 북부의 스따라산줄기와 남부의 스레드나산줄기인데 서로 대치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벌가리아의 경내를 연연히 뻗어내려 그 사이에는 근 100km나 되는 긴 계곡을 이루고있다.

이곳이 바로 세계에 널리 알려진 장미기름의 고향, 벌가리아의 장미계곡이다.

두 산줄기의 가운데 자리잡은 까잔러크시는 동쪽으로 가도 장미계곡이고 서쪽으로 가도 장미계곡이 뻗어있어 일명 《장미도시》라고도 불리운다.

해마다 늦은봄과 초여름이 되면 길이 100여km, 너비 10여km의 긴 장미계곡은 온통 장미꽃으로 단장되고 꽃향기가 차고넘친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이곳에서는 17세기부터 소아시아반도로부터 장미를 들여다 심기 시작하여 오늘까지 장미를 재배하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파쑈도이췰란드침략자들은 이곳의 장미들을 뿌리채 뽑아던지고 거기에 감자와 곡물을 심게 하였다.

전후 장미계곡은 벌가리아인민의 근면한 로동에 의하여 새롭게 변모되였다.

장미계곡의 북쪽 스따라산줄기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을 막아주고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은 쓰므랴마강과 뚠쟈강계곡을 따라 습한 공기를 실어다주어 이곳은 장미재배의 가장 리상적인 지역으로 되고있다.

장미꽃이 피는 기간은 20~25일간이다. 장미꽃잎에 기름이 가장 많이 함유되여있는 시간에 사람들은 꽃채집을 한다.

해마다 5월 하순부터 6월초까지는 장미가 개화만발하는 시기이다.

벌가리아에서는 6월의 첫 일요일을 장미절로 하고있다. 해마다 장미절이 되면 까잔러크시와 그 주변마을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가밑에 성대한 경축행사를 진행한다.

사람들은 시안의 소녀들속에서 10명의 장미처녀를 선발하고 그들속에서 다시 제일 고운 장미녀왕을 선발한다.

오늘은 우리 나라와 벌가리아사이에 대사급외교관계를 맺은지 65돐이 되는 날이다.

김 수 진

일본에서 항의집회

일본 도쬬에서 21일 당국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국회청사가까이에 있는 한 공원에서 진행된 집회에는 수천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법안이 채택되면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로 인한 핵위기와 같은 문제들도 흑막속에 묻어두게 될것이라는데 대해 문제시하면서 그러한 부당한 법안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웰남 기행

친선의 력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부른다

년전신문사의 초청으로 웰남을 방문하게 되는 우리 《로동신문》대표단이 하노이의 비행장에 도착한것은 저녁무렵이였다. 웰남의 11월은 가을철이라 어지간히 선선한 바람도 불었지만 특유한 남방정서를 자아내는 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숙소로 달리는 우리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비행장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년전신문사 벗들의 친선의 정도 뜨거웠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가슴을 더욱 불태워준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웰남방문의 력사적인 자욱을 남기신 때로부터 55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이 나라에 온 크나큰 감격이였다.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불밝은 건물들이며 설레이는 나무들 아니 눈앞에 보이는것마다 정답게 안겨왔다. 그 하나하나에 수십년전 웰남땅을 찾으신 우리 수령님을 우러러 목청껏 터치던 이 나라 인민들의 환호성이 그대로 슴배여있는것만 같아 정녕 무심히 대할수 없었다. 중국의 베이징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여러 시간이나 날아와야 하는 머나먼 거리에 떨어져있는 웰남이고 또 처음 방문하는 나라이지만 이렇듯 각별한 마음으로 하여 우리 대표단성원들모두가 마치 정다운 이웃의 뜨락에 들어서는듯 한 한결같은 심정을 느끼였다.

우리는 수도 하노이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아담하게 꾸려진 숙소에서 년전신문사의 일군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선의 정을 더욱 꽃피웠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웰남의 벗들과 함께 시내중심에 있는 호지명주석의 묘를 찾았다. 우리가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호지명주석의 묘로는 수많은 웰남인민들과 외국인들이 줄지어 찾아오고있었다.

조국의 자주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한생을 바친 호지명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우리는 묘에 화환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경건한 마음으로 묘를 돌아본 우리는 그 주변에 있는 호지명주석의 사적구역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민족옷을 입은 웰남녀성이 우리를 안내하며 사적구역의 내용들을 친절하게 해설해주었다.

이곳은 호지명주석이 1954년부터 1969년까지 15년동안 사업하고 생활한 곳이였다.

우리는 먼저 호지명주석이 1954년부터 여러해동안 리용한 건물을 돌아보았다. 침실이며 응접실, 사무실 등 건물의 매 방들은 너무도 소박하였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바친 호지명주석의 끝없는 헌신적열정이 빛발치고있는듯 하였다.

어려움을 겪는 인민과 고락을 같이하며 사회주의혁명과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온넋을 바쳐온 호지명동지의 투철한 혁명성을 뜨겁게 느끼며 이 건물을 떠나 그곁에 있는 정갈한 못을 따라가니 독특한 민족적정서를 자아내는 다락형식의 목조건물이 나타났다. 1958년부터 호지명주석이 일하며 생활한 곳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서도 우리는 주석의 고결한 인민성과 검박성이 슴배인 여러 유물들이 보존되여있는 사무실, 침실 등을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우리를 더욱 흥분시킨것은 이곳에 수십년전 웰남방문의 나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호지명주석과 담화하신 사적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허물없이 수수한 마루바닥에 마주앉아 친분관계를 두터이하시며 조선웰남친선의 뉴대를 활짝 꽃피워가신 두 나라 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의 친근한 음성이 오늘도 들려오는것만 같아 격정을 금할수 없었다.

사적구역을 떠나 바딩광장에 나서니 우리의 격정은 더욱 끓어올랐다. 웰남인민들 누구나가 즐겨찾는다는 바딩광장,

주체47(1958)년 11월 28일, 그날 바로 이 광장에서 웰남에 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환영하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였었다. 대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설을 마치시고 자리에 돌아오시자 사회자가 대회폐막을 알리려고 연락앞으로 나갔다.

이때 《가만!》하는 호지명주석의 목소리가 울렸다. 빠른 걸음으로 연락앞에 나선 호지명동지는 수만명의 군중을 향하여 원래 이 대회에서는 나의 발언이 예견되여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김일성동지를 모신 이 영광의 자리에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수 없다, 김일성동지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두 제국주의를 때려부신 절세의 영웅이시고 새 사회건설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지금 조선인민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의 높은 봉우리로 질풍같이 달려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 동포들, 우리도 조선형제들처럼 천리마를 탈수 있는가 하고 말하였다. 군중은 한목소리로 탈수 있다고 화답하였다. 호지명주석은 우리에게 천리마의 기세를 안겨준 김일성동지께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만세를 부르자고 하면서 선창을 떼는것이였다. 순간 《만세!》의 환호가 천지를 진감하였다.

세계혁명의 수령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호지명주석과 웰남인민이 펼친 숭고한 화폭이였다.

진정 인민의 자유와 행복, 조국의 통일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이라는 하나의 사상, 하나의 리상에서 출발하여 두 나라 령도자들께서 굳건히 마련해주신것이여서 조선웰남친선관계는 세월의 언덕을 넘어, 세기를 이어 오늘도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방문의 나날이 흐를수록, 웰남의 어제와 오늘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수록 이 나라 인민에 대한 우리의 친선의 감정은 더욱 깊어갔다.

하노이에 있는 군사력사박물관에 대한 참관은 우리로 하여금 웰남인민의 자주정신과 열렬한 애국심을 깊이 느끼게 해주었다.

2층으로 된 건물과 그 주변에 놓여있는 많은 전시물 등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은 장구한 세월 민족해방과 조국의 통일독립을 위하여 피흘려 싸운 웰남인민의 투쟁력사의 증견자와도 같았다. 오래동안 받아온 외세의 지배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민족적영웅들의 초상들과 동상들, 멸망의 불길에 휩싸인 침략선의 몰골을 형상한 화폭, 활촉을 비롯한 유물들…

특히 민족해방투쟁과 반미구국항전을 정력적으로 이끌어간 호지명주석의 혁명활동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비롯한 자료들이 깊은 감명을 자아냈다.

야외에는 외세의 침략을 반대하는 웰남인민의 항거정신과 위훈을 보여주는 땅크, 포 등이 전시되여있었는데 우리의 눈길을 더욱 끈것은 파괴된 침략군비행기의 잔해로 형상한 특색있는 전시물이였다. 침략자의 말로가 어떤것인가를 웅변적으로 시사해주는 전시물을 볼수록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웰남전쟁에 용약 달려나가 공중우세를 뽐내며 돌아치던 미제의 비행기들을 타격소멸함으로써 웰남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고 세상을 놀래운 영용한 조선인민군 비행사들의 위훈에 대한 추억으로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두 나라의 위대한 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조선과 웰남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는 이렇듯 피로써 더욱 공고화되였기에 억척불변이 아니겠는가.

웰남방문기간 우리와 만나는 이 나라의 일군들과 인민들모두가 조선웰남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고있었다.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인 황 빙 꾸언은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조선의 《로동신문》 대표단이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매우 의의있는 해에 웰남에 왔다고 하면서 웰남조선친선관계는 호지명주석과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해주신것이다,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신뢰에 기초한 형제적인 관계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가 년전신문사를 방문하였을 때 상임부총주필 팅 장은 두 나라 관계에 대하여 두 형제, 두 동지, 두 전우, 두 영웅이라고 한 전 웰남부수상의 말을 인용하고나서 신문사의 현실태와 종합적이며 현대적인 보도집단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적문제에 대하여 알려주면서 두 나라 당보사이의 긴밀한 협조에 대한 기대를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그날 저녁 우리와 자리를 같이한 년전신문사 총주필 투언흐는 두 나라 수령들께서 마련해주신 친선관계와 지난해 조선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 두 나라는 미제의 침략을 같이 받았고 분렬의 고통도 함께 느꼈다고, 조선의 통일을 웰남인민들도 원한다고 열정적으로 토로하였다.

친선의 정 넘치는 목소리는 수도뿐아니라 지방도시에서도 울려나왔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있는 아름다운 명승지 하롱만이 위치하고있는 꽝 닝주를 찾았을 때 주당일군은 우리 대표단의 방문을 열렬히 축하하면서 조선이 웰남인민의 반미구국항전을 물심량면으로 도와준데 대하여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두 나라 친선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뿐만아니라 하롱 펄호텔의 애젊은 봉사원은 우리 대표단성원들이 가슴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초상휘장을 경건히 바라보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존함을 높이 부르며 친선의 정을 뜨겁게 표시하였다.

웰남방문기간 우리 대표단과 함께 동행한 과장 판 썬을 비롯한 년전신문사의 일군들은 인터네트와 텔레비죤 등을 통해 조선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계신것을 느꼈다, 조선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열병식이 매우 훌륭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계속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진정을 터놓았다.

참으로 어딜 가나 수십년전 로세대령도자들께서 몸소 가꾸어주신 두 나라사이의 친선의 정이 변함없이 뜨겁게 흐르고 굳건한 형제적우의와 동지적관계로 친근한 웰남땅이였다.

하기에 우리는 공산당의 령도밑에 자기 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웰남인민들의 약동하는 숨결을 더욱 기쁘게 느꼈다.

웰남사람들 누구나가 토로하였듯이 조선과 웰남 두 나라 인민은 사상도 리상도 같다. 서로의 지지성원은 두 나라에서의 혁명과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관계발전의 력사는 아름다운 미래를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웰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호지명묘

ㄱ-311867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